



K-공감

적극행정이 어떻게 국민 삶을 바꿨나
저소득 대학생에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패럴림픽 선수단 '파리의 기적' 다시 한번!
인천 전기차 화재 피해 차량 '무료세차' 사장님



“위기임산부 위한
1308
한 통의 전화가
한 생명 구해요”

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이지은 상담사

2024 관광 일자리페스타

제11회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관광을 열다, 내 일(MY JOB)을 열다!

2024.9.10(화)~9.11(수) 10:00~17:00
aT센터 제1전시장

온라인 2024.8.19(월)~9.13(금) www.tourjobfair.com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공동주관 | 한국관광공사 한국호텔업협회 GKL VKC (주)한국방문의해위원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KOTSA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한국관광학회 KATA 한국여행업협회 KCA 한국유망온도미니엄경영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 후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IBK기업은행



온라인 박람회 참가하기

더 공감

부끄러운 추억입니다만

비행을 하다 보면 생각을 많이 한다. 이륙 후 순항 고도에 이르면 수시간 동안 같은 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하게 된다. 계속 같은 자세로 불이 꺼진 조종석 안에서 말없이 앉을 응시하고 있다 보면 항공 계기판 너머로 지난 삶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곤 한다.

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가 떠오른다. 나는 “대학만 가면 살도 빠지고 여자 친구도 금방 생긴다”는 선생님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더벅머리에 안경을 낀 평범한 남학생이었다.

패션 감각도 없어서 항상 비슷한 체크무늬 셔츠와 면바지를 번갈아 입고 등산용 백팩의 좌우 주머니에 우산과 물통을 장착한 채 서울 신촌 거리를 활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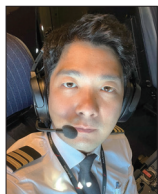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선생님은 거짓말쟁이었다. 대학에 간다고 해서 모두 여자 친구가 생기는 건 아니었다. 남들 다 하는 소개팅과 미팅도 해봤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았다. 좋아하는 이성에게 고백했다가 차이고 나서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친구 앞에서 술을 마시며 펄펄 울었던 기억도 난다.

비슷한 이유로 괴로워하던 친구와 술을 마셨는데 그 친구가 사라지는 바람에 실종신고를 한 적도 있다. 다행히 다음날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캠퍼스 안에서 설립자 동상을 끌어안고 잠들었다 일어나 보니 경비원이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 했다.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둔 지금 지난날의 ‘흑역사’를 꺼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그때는 그렇게 창피하고 심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혼자 슬며시 웃음 짓게 하는 에피소드가 됐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서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도 달라졌다. 많은 사람과의 관계와 경험 속에서 가치관도 변해갔다. 그때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슬펐던 일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다. 이제는 무병, 건강, 자녀 교육 같은 것들이 무엇보다 소중해졌다. 삶의 터전도 서울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바뀌었다. 앞으로 10년 뒤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때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바라건대 부끄러운 기억보다는 자랑스럽고 뿌듯한 기억이 더 많았으면 한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나는 여전히 옷을 못 입는다. ‘옷이란 외부의 불쾌한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보온 효과를 주는 천조가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파일럿이 되고 나니 다행히 옷 걱정 없이 유니폼만 입으면 돼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간다. **K**



원요환

프로N잡러 중동 파일럿.
국내 경제지 기자 출신으로
지금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민항기 조종사로 일하고 있다.
이외에도 작가, 리포터,
콘텐츠PD 등으로 활동 중이다.





고종의 비밀도장 ‘황제어새’

1909년, 고종 황제의 외교 자문 담당이자 비밀 특사인 호머 베절릴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1863~1949)는 “내 내탕금(비자금)을 찾아 나라를 위해 요긴하게 써야 한다”는 고종의 친필 위임장을 품에 넣고 중국 상하이에 있는 독일계 덕화은행으로 향했다. 위임장에는 고종의 비밀 도장인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大韓帝國 高宗 皇帝御璽)’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러나 이미 고종의 비자금은 일본 정부가 전액 인출해간 후였다.

고종의 비자금을 추적하고 있는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김동진 회장은 “고종 황제의 예치금 존재를 알게 된 일본은 1908년 4월 독일 공사에게 고종 황제의 어새가 찍힌 인출 청구서가 확보됐으니 돈을 통감부(統監府)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인출 청구서를 받은 덕화은행은 고종 황제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예치금을 두 번에 걸쳐 지급했다”고 말했다.

헐버트의 위임장에 찍힌 고종의 비밀 어새는 일제가 위조서류에 사용한 어새와는 다르다. 대한제국의 국새(國璽), 어새(御璽), 어보(御寶), 보인(寶印) 등을 수록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실리지 않은 어새로 대부분 고종의 비밀 외교 활동에 사용됐다. 헐버트가 국제사회에 을사조약을 고발하기 위해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을 때도 밀서에 이 비밀 어새가 찍혀 있었다.

국새나 어보의 크기에 비해 작게 제작된 비밀 어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우리 토종 거북인 남생이 모양으로 조각됐다. 어새를 넣은 내함은 황동으로 만들어졌으며 특이하게 내부에 인주함이 들어 있다. 대한제국 몰락 이후 사라졌던 비밀 어새는 미주 한인이 소장하고 있다가 국립고궁박물관이 사들여 2009년 보물로 지정됐다. **K**



강형원

1963년 한국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민했다. UCLA를 졸업한 뒤 LA타임스, AP통신, 백악관 사진부, 로이터통신 등에서 33년간 사진기자로 근무했고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풀리처상을 2회 수상했다.



2024.08.26-09.01

No. **769**

정책주간지

gonggam.korea.kr

K-공감

발행일 2024년 8월 26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발행인 유인촌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6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프린피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 851-0183

K-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표지사진 C영상미디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K-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i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01

더 공감

원요환

'부끄러운 추억입니다만'

02

강형원 기자의 문화유산 찾기

고종의 비밀도장

'황제어새'

06

커버스토리

“위기임산부 위한 1308 한 통의 전화가 한 생명 구해요”

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이지은 상담사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아기 16명 살렸다

14

지금 용산은

“힘에 의한 평화 위해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침략은 곧 종말’
북에 확실히 인식시켜야”

18

알쓸정책

위메프·티몬 피해 구제에
1조 6000억 원 지원 외

22

정책 돋보기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8월 27일부터 3만→5만 원
“세종학당은 한류 전진기지”
온라인 세종학당 구축
수도권 주담대 더 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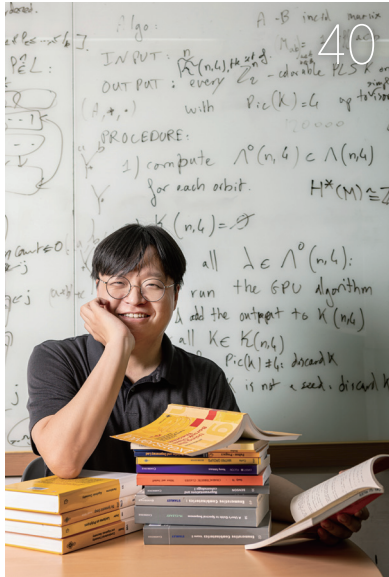
25

돈 되는 정책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터 또는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리더기를
이용해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40

이슈

의료사고 때 환자 돕는
대변인 신설

40

K-피플

전원 메달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최수영 단장

44

김형자의 친절한 과학정책

탄소중립 해결사!
소형 모듈 원자로가
주목받는 이유

46

어피티가 본 MZ 생각

“스마트폰
얼마나 자주 사용하나요?”



56

49

청룡이의 정책툰

청년내일배움카드

50

문화

올바른 미디어 이용법
놀이로 배운다

52

작은 영웅들

인천 전기차 화재 피해차 '무료 세차'
김재성·김영호 씨

56

여행이 있는 주말 한국관광 100선

동해

도재비글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

60

신기훈의 마음 상담소

“가난, 따돌림, 데이트 폭력...
한 번도 봄이 온 적 없는 내 인생
어떻게 추슬러야 할까요?”

62

함께 즐기기다

대한민국 미술축제 외

64

독자 공감

26

포커스

저소득 대학생에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28

정책현장

적극행정이 국민 삶을
이렇게 바꿨다

32

2024 파리패럴림픽

한계를 넘은 영웅들
‘파리의 기적’은 계속된다

34

기획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삼형제에 넷째 출산 앞둔
박기태·유수연 부부



34

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애란원) 이지은 상담사

“1308이 엄마가 되고 언니가 되고 전화 오면 ‘밥 먹었냐’부터 물어요”

“철분이나 엽산 잘 먹고 있지?” “아기는 씹씹하게 발차기 잘하지?” 임신부들에게 너무 당연한 이 질문을 열 달 내내 한 번도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다. 출산 때까지 임신 과정을 홀로 감내해야 하는 이들에겐 축복이어야 할 임신이 가슴 아픈 사연이 된다. 그래서 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인 애란원의 이지은 상담사는 전화가 걸려오면 꼭 묻는다. “밥은 잘 먹고 있는지”를.

“청소년이 임신을 했다거나 혼외자를 가졌거나 하는 사회적 사정을 다 빼고 나면 이들에겐 단 한 문장만이 남죠. ‘아이를 가진 여성’입니다. 우리는 결코 도덕적으로 위기임산부의 사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태아의 생명에 집중해요. 자신의 상황을 무겁고 무섭게,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여기다 여느 임신부처럼 일상적인 질문을 받으면 ‘아, 나도 한 생명을 품고 있는 엄마구나’ 하며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 상담사는 이들에게 “고맙다”는 말도 빼먹

지 않는다. 상담사를 찾는 이들의 배는 어김없이 남산만큼 불러 있다. 긴 망설임의 흔적이다.

“대부분 부모님은 물론 친구 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다 마지막이 돼서야 절박한 심정으로 전화를 걸어요. 39주 차, 40주차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태 그 아이를 품어줘서 고맙다고 말해요. 그게 언제든 용기 내 전화 번호를 눌러줘서, 꺼내기 힘든 애길 들려줘서 감사하다고. 그동안 혼자 아이를 지키느라 고생이 많았다, 이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헤쳐 나가보자고 합니다.”

국번 없이 ‘1308’을 누르면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단순 상담사 넘어 보호자 역할까지

1308은 이전에는 없던 번호다. 보건복지부가 7월 19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로 새로 개통했다. 물론 그전에도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는 있었다. 모두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차원이었다. 중앙정부 주도의 운영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16개 상담기

?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인 애란원의
이지은 상담사. 그는 전화를 망설이는
위기임산부들에게 "홀로 외로운
출산을 감당하지 말고, 24시간 언제든지
1308로 전화해 달라"고 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위기임산부와 오랜 시간 대화하고 고민을 나누다 보면 가족이 되는 기분이에요. 때론 이모가 되고, 언니가 되며, 엄마의 심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상담사에게도 각별해요.”

관을 전담센터로 지정했다. 민간의 전문성을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차원이다.

서울센터로는 1960년 개소한 애란원을 선정했다. 60년 넘게 미혼모 등의 출산 및 양육 지원과 자립에 힘써온 곳이다. 이 상담사는 “1308 개통으로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받던 임신·출산·양육 상담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전화를 걸면 임신부 위치와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기관으로 자동 연결된다. 만일 거주 지역 상담센터가 싫다면 ‘0’번을 누르면 된다. 상담자가 가족이나 생부와의 관계 상담, 심리 상담, 산부인과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다면 의료 지원도 연계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생계·주거·고용·교육·양육·법률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전화 상담뿐만이 아니다. 대면 상담과 긴급출동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진통으로 병원에 가야 하면 연계된 병원으로 이송과 함께 상담사가 내원해 손을 잡아준다. 이 상담사는 “심야시간에 병원으로 달려가는 일도 종종 있다”면서 “최근에도 아이 아빠와 연락이 두절된 임신 39주 차 30대 미혼 여성이 센터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출산했다”고 말했다. 단순한 상담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호자 역할까지 하는 셈이다.

“위기임산부 상담은 전화 한 통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전화가 연결된 이후에는 무조건 대면한다는 목표로 상담에 임합니다. 위기임산부들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기 쉬워

요.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도 안 만나고 사회적·심리적으로 고립되다 벼랑 끝에서야 도움을 요청해요. 반드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의 사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데다 유대관계도 형성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첫 대면 상담이 성사되면 보통 1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난다. 이를 통해 출산 이후의 계획까지 함께 구상한다. 이 상담사는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지 않도록 처음 접촉한 상담사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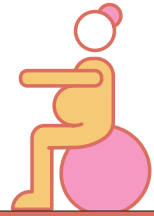
번호 개설 한 달여. 서울에서만 약 50명의 위기임산부가 상담과 시설입소, 긴급지원, 병원 동행 등의 도움을 받았다. 한때 중절수술과 영아유기까지 고민했던 위기임산부들은 상담 과정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결심하기도 한다. 이때 상담사들은 ‘아이는 모름지기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당위적이고 계몽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다.

이 상담사는 “24시간 직접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엄마에게 육아는 현실”이라면서 “현실 육아’의 고충도 함께 알려주면서 육아를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했다. 그는 “출산 후 각종 수당을 비롯해 미혼인 경우 한부모 지원제도 등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알려준다”면서 “지속가능한 육아를 위해 산모의 자립과 진로고민도 함께 해주고,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아이돌봄 제도 등을 설명하면 산모들은 점차 ‘내가 이 아이를 직접 키울 수도 있겠구나’ 하며 용기를 낸다”고 했다.

1308 전화 한 통으로 아이의 운명이 달라지는 순간이다.

1308은 생명을 구하는 전화

때문에 이 상담사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다. 그에게 아기 울음소리는 기쁨이자 안도감이다.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목록

| 지역 | 기관명 | 주소 |
|-------|-----------------------------|---------------------------------------|
| 서울 | 애란원 | 서울 서대문구 연대동문길 138 |
| 부산 | 마리아모성원 | 부산 서구 천해남로 7 |
| 대구 | 가톨릭푸름터 | 대구 수성구 들안로 32길 96-11(황금동) |
| 인천 | 인천자모원 | 인천 중구 우현로50번길 23-2(경동) |
| 광주 | 엔젤하우스 | 광주 남구 용대로 91 |
| 대전·세종 | 대전자모원 | 대전 대덕구 덕암로 118번길 47 |
| 울산 | 미혼모의집 물푸레 | 울산 중구 성안10길 16 |
| 경기 | 광명아우름 | 경기 광명시 오리로 619번길 11 3층(예원빌딩) |
| 강원 | 마리아의 집 | 강원 춘천시 스무쉴2길 16-3 |
| 충북 | 새생명지원센터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랑로3번길 40 2층(조은빌딩, 주중동849) |
| 충남 | 구세군 아름드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142-28 |
| 전북 | 기쁨의하우스 | 전북 익산시 배산로3길 24-19 |
| 전남 | 성모의 집 | 전남 목포시 원호길5번길 24 |
| 경북 | 사단법인 더프라이스 (경북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21-5, 하나빌딩 3층 |
| 경남 |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2길 15-1 |
| 제주 | 애서원 | 제주 제주시 한경면 청수동 4길 30 |

자료 보건복지부

“위기임산부와 오랜 시간 대화하고 고민을 나누다 보면 가족이 되는 기분이에요. 때론 이모가 되고 언니가 되며 엄마의 심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상담사에게도 각별해요. 10대 위기임산부의 아기 이름을 손수 지어준 일도 있어요. 그 이름으로 무사히 출생신고도 마쳤고 건강히 잘 자라는 중입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다. 성적인 농담을 던지는 장난전화가 반복적으로 걸려오기도 한다. 이 상담사는 “고충도 있지만 보람이 더 크다”면서 “오늘도 한 위기임산부가 출산을 했는데 상담사들은 한 생명이 세상의 빛을 봤다는 사실을 동력으로 삼으며 일한다”고 했다.

서울센터의 상담사는 총 8명이다. 모두 사회복지사다. 위기임산부 관련 내·외부 교육도 철저히 이수했다. 근무는 8시간씩 3교대다. 24시간 쉬지 않는다.

전화는 하루 평균 10통 정도 온다. 1308 번호가 차츰 알려지며 전화량도 늘고 있다. 저녁 이후부터 심야시간에 더 자주 올린다. 수화기 너머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떼고 끝내 복받쳐 우는 경우도 많다. 이 상담사는 “이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출산 이후도 걱정되니 결국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라며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외로운 출산은 없도록, 우리가 같이 있을 테니 부디 용기를 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상담사는 8년 경력의 사회복지사다. 애란원 입사 전에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했다. 장애여성의 임신·출산 과정을 지켜보며 임신·출산과 관련된 좀 더 폭넓은 도움을 주고 싶어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그는 “위기임산부를 상담하려면 각종 지원제도는 물론이고 신체 변화, 심리상태 등을 숙지해야 하므로 매일매일이 배움의 연속”이라면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배움에 나태해지지 않는 복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K**

박지현 기자

낙태하려다 출산 입양하려다 양육 결심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아기 16명 살렸다

정부는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 중이다. 2023년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은 아동의 출생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시행 한 달여, 벌써 16명의 생명을 살렸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제도다.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2021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다. 출생통보제를 통해 대부분의 출생아를 공적체계에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다. 임신과 출산을 밝히기 꺼리는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한 뒤 유기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한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돕는 제도다.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한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관련 상담을 받아야 한다. 신청 후에도 상담을 통해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이 제도가 ‘최후의 수단’으로 쓰여야 하는 만큼 정부는 임산부가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게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16개를 설치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동시에 24시간 운영하는 상담전화 ‘1308’도 마련했다.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뜻밖의 임신으로 출산을 고민 중인 위기임산부들에게 다양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연계한다.

제도 시행 한 달간(7월 19일~8월 18일) 368개 의료기관에서 1만 8364건의 출생정보가 심평원으로 통보됐다. 하루 평균 600건이다. 같은 기간 위기임산부 상담은 419건이 진행됐다. 상담은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로 이뤄졌다. 이후 대면 상담, 모바일 상담, 출동 상담 등으로 이어졌다.

위기임산부들은 주로 심리·정서 지지, 서비스 연계, 경제적 어려움, 보호출산 신청, 의료·건강 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 후 위기임산부의 필요에 따라 시설 입소, 주거·양육 등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맨 왼쪽)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계기로 서울 서대문구 일대 약국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 여성가족부

긴급 지원도 마련됐다. 현재까지 16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위기임산부들의 사연은 다양했다. 한 임산부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던 중 보호출산제를 알게 됐다. 고민 끝에 아이를 출산하기로 결정했고 출산 후 숙려기간 동안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보호출산을 철회하기로 결심했다. 직접 키우기로 한 것이다.

부모로부터 임신중절수술을 제안받았으나 본인이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온 임산부도 있었다. 이 임산부는 상담사의 제안에 따라 출산지원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었다. 갓 출생한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돼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 임산부도 있었다. 전화를 받은 상담사는 바

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먼저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보호한 후 출생신고를 했고 지금은 지속적인 상담과 함께 입양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아이를 살리는 쌍둥이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나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1308, 약국과 임신테스트기에서 확인 가능

복지부는 더 많은 위기임산부가 ‘1308’ 번호를 접할 수 있도록 동분서주 중이다. 이 차관은 8월

보호출산제 절차는?

‘최후의 수단’... 아이 직접 양육할 수 있게 최대 지원

정부는 보호출산제가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앞서 임신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신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전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자녀의 알권리와 알권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해 다시 상담을 한 뒤 보호출산 신청을 할 수 있다.
- 2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가 생성된다. 임신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 3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신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자체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 4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신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 5 임신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6 이때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사당 인근 약국들을 찾아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홍보물 부착 현황을 확인하고 약국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7월 19일 서대문구 소재 약국, 7월 24일 종로구 돈의동 소재 약국, 8월 1일 동대문구 창신동 소재 약국을 방문한 이후 네 번째 약국 방문이다. 약국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와 그 중요성을 설명한 이 차관은 “임산부들이 임신테스트 기 구매를 위해 가장 먼저 찾는 약국에서 제도를 인지하고 임신부에게 적극 안내·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앞서 7월 9일 대한약사회, 동아제약(주)과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임신테스트기 안에 1308 전화번호 안내가 들어가게 됐다. 약국도 적극적으로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앞으로도 위기임산부에게 1308을 알릴 수 있도록 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특히 정보 취약계층인 위기임산부도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임신부들이 찾기 쉬운 장소인 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교 상담센터, 가족센터 등을 중심으로 위기임산부 상담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8월 19일에는 ‘2024년 제1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장 간담회’도 개최했다.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과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간 소통체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현안 공유를 통한 제도 안착을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16개 지역상담기관 기관장, 복지부 담당자가 참석했다. 중앙상담지원기관은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방안 ▲위기임산부 법률 지원 강화 방안 ▲민간 복지자원 발굴·연계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위기임산부는 나이·소득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등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다.”

16개 지역상담기관은 주요 상담 사례, 지역 맞춤형 홍보 계획 등 지역상담기관의 업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에 대해 건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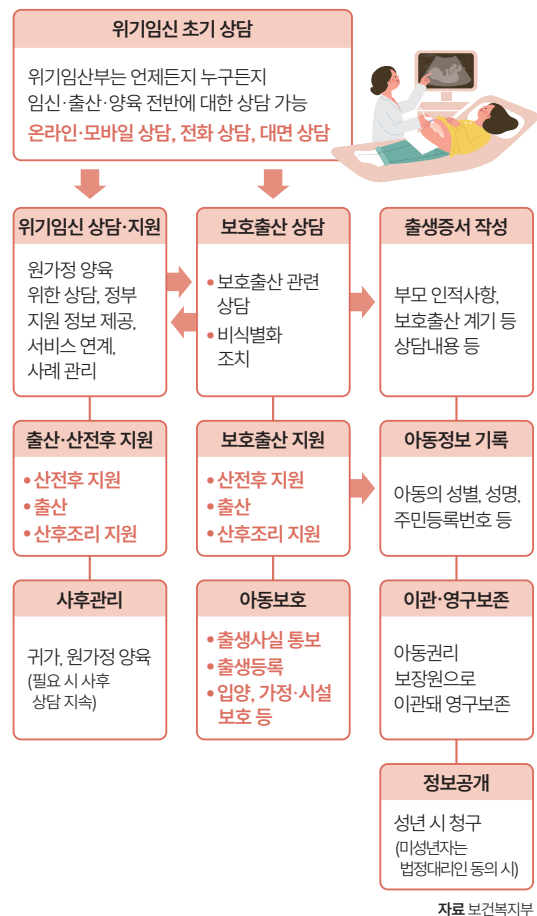
위기임산부 나이·소득 관계없이 시설 입소

정부는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위기임산부는 나이·소득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등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하고 7월 19일부터 시행했다. 기존에는 위기임산부 중 2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26곳) 입소가 가능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8조에 따라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상담기관의 신청을 통해 나이 및 소득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시설 입소 문턱을 낮춰 위기임산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가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 지원 등을 위해 전국 121곳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늘리고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확충(2023년 266호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기본 체계



→2024년 306호)하는 등 지원을 확대 중”이라면서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소득기준 폐지 및 입소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제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했다. [K] 박지현 기자

“힘에 의한 평화 위해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침략은 곧 종말’ 북에 확실히 인식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 실드)’ 연습 3일 차인 8월 2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와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우리 국군의 절반이 넘는 약 25만 명의 장병을 지휘·통제하는 부대로 평시에는 교육훈련과 전투준비 및 지상경계 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로서 한미 지상군 전력을 지휘하는 국가방위의 핵심부대다. 2019년 제 1·3야전군을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한 이후 국군통수권자가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에게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 판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장병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겠다는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은 국가총력전 수행 태세를 점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3년 동안 중단됐던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부활시켜 대비태세를 굳건히 해왔고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면서 연습과 훈련을 더욱 체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만 90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하는 이번 훈련은 8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이 연합방위태세의 근간이며 한미동맹의 핵심”이라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실 있는 연습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장병들과 함께 “같이 갑시다!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라고 구호를 외치며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강력한 안보태세, 국민 안전·자유 지켜”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첫날인 8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행사'에 참석해 선수단과 만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며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넓은 관행을 과감히 혁신해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선수 144명, 지도자 90명 전원에게 '국민 감사 메달'을 수여했다. 사진 뉴스시스

윤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라며 “이번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내실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실과 정부 부처는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 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먼저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를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라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3일 차인 8월 21일 경기 용인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전투작전본부 내 작전상황실에서 을지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런 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훈련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월 22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민방위 훈련을 내실화해 북한의 공습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량이동 통제와 대피훈련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한미 연합야외기동 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는 다수의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할 예정”이라며 “우리 군과의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 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전시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

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통해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와 역량을 갖추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8·15 통일 독트린 시의적절”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1일 통일·외교 분야 원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104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강인덕 경남대 석좌교수(전 통일부 장관),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 이사장, 윤병세 청와대재단 이사장(전 외교부 장관),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가 참석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철통같은 안보협력 제고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스스

한·미·일 3국 정상은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의 정신은 우리를 계속 고취시키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수립한 원칙은 우리의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2023년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해 3국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세 정상은 성명에서 “우리는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및 위협에 있어 우리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지켜나간다”며 “우리는 3국 간에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나감에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공조를 증진하고 견고한 인적 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우선순위에 대한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통해 이러한 공동의 목표들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세 정장은 또한 “우리는 3국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최초 시행,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북한의 사이버 범죄 및 여타 불법적 수단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원 마련 시도 대응에 초점을 둔 3국 실무그룹이 이뤄낸 진전을 비롯한 3국 협력의 성과를 축하한다”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의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반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성명을 두고 “안보, 경제, 기술, 인적 유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3국 정상은 오늘날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며 3국의 협력은 반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8·15 통일 독트린은 윤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에 내놓은 새 통일 패러다임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7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원로들에게 발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한 뒤 의견을 청취했다. 원로들은 “지금 이 시점에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이 시의적절하다”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회에 진실과 자유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원로들은 또 “국민이 통일에 관해 다시금 생각하면서 헌법 정신과 자유규범 질서가 부여하는 사상적 의미를 되짚어보도록 쉽고 설득력 있는 통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응한 콘텐츠 개발도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원로들은 윤 대통령에게 국제사회에서 통일 비전을 공론화하고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K**

강정미 기자

위메프·티몬 피해 구제 1조 6000억 지원

미정산금 8188억 원... 대출 만기 연장·이차보전 등 뒷받침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피해 업체 구제에 1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인하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핸드폰 소액결제 등의 피해도 조속히 구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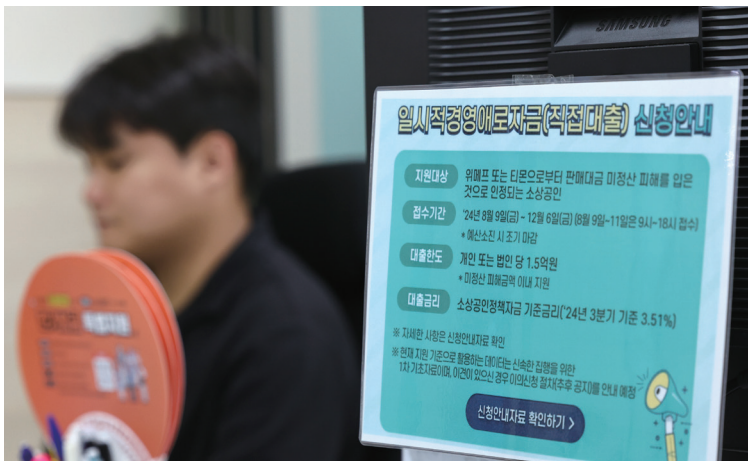
위메프·티몬 피해와 관련한 미정산 금액은 8월 19일 기준 총 8188억 원으로 조사됐다.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로 추산된다. 이 중 일반상품 및 상품권 피해에 대해서는 총 359억 원의 환불절차가 완료됐다. 여행·숙박·항공권 피해는 조정신청 9028건을 접수, 9월 말까지 조정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휴대폰 소액결제 중 일반상품 결제액에 대해서는

환불이 진행 중이다.

이번 지원액 규모는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 원, 1000억 원을 투입해 피해 업체에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 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나섰다. 더불어 16개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조 원 이상 규모로 편성해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해 직접 대출, 이차보전 등을 뒷받침한다. 앞서 피해 기업에 제공한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은 16건 91억 8000만 원, 선정산대출 만기연장은 1000건 1022억 원에 이른다(8월 16일 기준).

이와 함께 판매자를 대상으로 고용과 세정 지원도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태로 대규모 실직자가 발생한 데 따라 고용상황반을 운영해 취업과 실업급여 등을 신속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611억 원을 조기 지급했다. 최대 9개월 납기 연장과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도 계속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피해지원 추진 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보험료 인상 등 업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증보험사 등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8월 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시적경영애로자금 대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 뉴스3

최대 3만 원 할인 추석 맞이 숙박할인권 20만 장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석 연휴를 맞아 8월 27일부터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개최하고 지역 숙박할인권 20만 장을 배포한다. 할인권은 8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

으로 발급한다.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할인권,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 2만 원 할인권이 지원된다.

사용기간은 9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박 시 사용할 수 있다.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판매처와 사용방법 등은 누리집(ktostay.visitkorea.or.kr) 또는 콜센터(1670-39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간편송금 악용한 ‘보이스피싱’ 신속 지급정지 가능해진다

앞으로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빠르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다. 금융위원회는 8월 28일부터 시행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9일 의결,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

자로 이전된 경우 선불업자에게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며 선불업자는 사기이용계좌 등을 다시 확인해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금전이 간편송금을 거치는 경우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웠는데 법령 개정으로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서민원 욕설·성희롱 포함되면 ‘담당자 종결’ 처리

앞으로 욕설, 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은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민원처리법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정신·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

복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만 종결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에는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업무 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경영 어려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 대출)을 이용하면서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완료하고 8월 1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60회차 내에서 최대 5년까지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다중채무자 ▲중·저신용자(NCB 839 이하) ▲전기 대비 10% 이상 매출 감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통해 상환 가능성을 심사한 뒤 최종 지원을 결정한다. 상환연장 뒤 금리는 기존 금리에 0.2%포인트가 가산된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방문 신청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유보통합 첫걸음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9월 1일부터 시작

정부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가칭)’을 9월 1일부터 시작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교육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학부모와 교사가 교육·보육 서비스 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유치원 68곳과 어린이집 84곳 등 총 152개 기관을 영유아학교 시범학교로 선정했다고 8월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곳, 장애통합어린이집 13곳, 장애전문어린이집 3

곳도 포함됐다.

각 시범학교는 교육과정과 연장과정(방과후과정)을 합한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추가로 운영한다. 특히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등 현장 요구가 많았던 과제를 우선 실시한다.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 영유아와 교사 간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수요 맞춤형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학부모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7개 시·도 교육청은 시범학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학교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모든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보편적인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특색사업을 운영한다. 지역 내 정서·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영유아 정서건강에 대해서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8월 22일 대구 수성구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방재 모자를 쓰고 대피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시스

어린이집·학교 30m 내 '금연' 8월 17일부터 과태료 10만 원

보건복지부가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전까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만 금연구역이었던 것을 확대했다.



서울 중로구 한 초등학교 앞에 금연구역 확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뉴시스

이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사회에서 활용·안내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www.khepi.or.kr)과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nosmk.khepi.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수능일은 11월 19일 '한국사' 필수 응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일이 2026년 11월 19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8월 16일 2027학년도 수능 시행일을 비롯해 성적 통지일, 시험 영역 등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 수능은 국어·수학 영역의 경우 '공통+선택과목' 구조 등 현재 체계로 실시한다.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 시간, 성적표 기재 사항 등도 동일하다. 국어·수학·직

업탐구 영역은 '공통+선택과목(1과목)' 구조이며 사회·과학탐구 영역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이외 영역·과목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2026년 3월 공고할 예정이다.

관광업계 취업 원하면 '2024 관광 일자리페스타'로 130여 곳 참여

130여 개 관광기업이 참여하는 '2024 관광일자리페스타'가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올해 11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관광을 열다, 내일(My Job)을 열다'를 주제로 미래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와 관광기업 간 일자리 연결을 지원한다. 여행사, 호텔·리조트,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기업 등 대표적인 관광기업과 관광벤처 및 플랫폼 기업, 테마파크 등이 참여한다. CJ ENM과 SM C&C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도 올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구직자는 이력서를 사전에 등록하면 온·오프라인 면접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구인기업은 사전 등록 이력서를 바탕으로 원하는 구직자에게 면접과 채용 상담을 제안하면 된다. 면접은 현장 박람회 또는 화상으로 진행한다. 온라인 박람회는 공식 누리집(academy.visitkorea.or.kr/fair/fairHome.do)을 통해 9월 13일까지, 현장박람회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9월 10~11일 진행된다. [K]

조윤 기자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5만 원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은 1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8년 만에 식사비 상한 등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27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언론인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상한액이 기존 1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고·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유지돼오는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

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 해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돼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됐다.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선물은 기존대로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현재 평상시 15만 원, 설날·추석 기간은 그 두 배인 3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설날·추석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해 그 기간 후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9월 17일인 이번 추석예 기준으로는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TV·라디오·신문, 유튜브,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왔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 임연영 기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8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5만 원 상향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세종학당은 한류 전진기지” 온라인에도 세종학당 만든다

전 세계 한류 확산에 힘입어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온라인 세종학당이 구축된다. 현재 256곳인 세종학당은 300곳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한국어 보급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앞서 세종학당 현지 관계자와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혁신방안 포럼을 열었다. 이를 토대로 시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 거점 세종학당 중심으로 현지 세종학당 지원·관리체계 강화 등을 담은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어 보급 전진기지인 세종학당 학습자 수는 2007년 한국어 강좌 개설 이후 17년간 약 300배 증가했고 누적 학습자는 106만여 명에 달한다. 세종학당 수강 대기자도 올해 2월 기준 1만 5000여 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문체부는 디지털 학습 환경에 적합한 통합형 운영체계인 아이(i)-세종학당을 구축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한국어 학습 접근성을 강화한다. i-세종학당은 기존 온라인·메타버스 세종학당과 스마트러닝 학습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합 정비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학습 기능을 고도화한 플랫폼이다. 기존과 달리 현지 거점에 서버를 두고 시공간 제약 없이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

또한 과학적 통계를 기반으로 세종학당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한다. 정기적으로 한국어 교육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 및 거점 세종학당의 전략적 진출과 현지 특성화 사업을 지원한다. 민간 영역에서는 강사 연수와 교재를 지원하고 정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하는 등 세종학당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한다. 특히 현재 수요와 미래 예측, 민간 시장과 현지 세종학당 운영 현황 등 통계에 기반해 신규 세종학당을 2024년 256곳에서 2027년 300곳까지 늘린다.

중간 관리기관으로서 권역별 거점 세종학당 기능을 강화해 현지 관리체제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현재 5곳인 권역별 거점 학당을 2027년 10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작은 문화원’으로서 세종학당 역할도 강화한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세종한국어평가(SKA)의 시행처도 2023년 50곳에서 2027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고 인터넷 기반의 수준별 ‘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iSKA)’를 시행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평가제도를 개편해 평가 결과에 따라 재교육을 의무화한다. 우수 교원에게는 특전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서비스의 품질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세종학당은 한국어를 통해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접하고 한국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한류의 전진기지”라며 “혁신방안을 토대로 우리말과 글을 전 세계에 널리 확산하고 보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

서경리 기자



2023년 10월 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열린 '2023년 집현전 왕실문화 체험학교'에 초청된 세종학당 한국어 우수학습 외국인들이 경내 수정전에서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뉴시스

수도권 주담대 더 조인다 스트레스 금리 1.2%p로 상향

정부가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수도권에 더 높이 적용하는 등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8월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장들과 만나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로 상향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정부는 2월 위험 수준에 이른 국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포인트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당초 7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달 미뤄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더해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게 된다. 2025년부터는 산출 결과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위험가중치는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설정하는 비율로 은행들은 해당 비율에 따라 돈을 비축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8월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첫 번째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보자”고 제안했다.

은행권의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진력해달라”며 “이러한 혁신 노력은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경제적 필요에도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은행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2025년 1월 시행되는 채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

김효정 기자

정부가 2024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앞서 납부한 카드수수료
일부를 환급해줘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올해 개업한 영세·중소 가맹점 18만여 곳 카드 수수료 환급

2024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한 사장님
들은 주목하세요!

영세·중소 가맹점이라면 앞서 납
부한 카드수수료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는 정부가 8월 13일부터
약 304만 6000곳의 신용카드 가맹점
(전체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
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올해 신규 신용카드 가
맹점의 경우 매출액 자료가 없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었는
데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곳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해 적용해주시기로
한 거예요.

영세·중소 가맹점이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곳을 말해요. 해당 업체는
앞서 납부한 카드수수료에서 우대수
수료를 뺀 만큼의 수수료 차액을 환
급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환급액
은 <카드매출액×(상반기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상반기 적용 우대수
수수료율)>로 계산해요. 이때 카드매출



카드가맹점 매출별
우대수수료율


| 연간 매출액 | 적용 수수료율(%) | |
|----------------------|------------|------|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3억 원 이하 | 0.5 | 0.25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1 | 0.85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25 | 1.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1.5 | 1.25 |

자료 금융위원회

액 발생 기간은 1월 1일부터 8월 13일
까지,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0.5~1.5%를 적용해요. 가령 올해 상
반기에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 매
출 1억 4000만 원을 올린 업체가 있다
면 연매출을 2억 4000만 원으로 추정
해 수수료 환급 대상이 되는데요. 앞
서 2.2%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
용받았다면 <1억 4000만 원×(기납부
수수료율 2.2%-우대수수료율 0.5%)>

로 계산해 약 238만 원을 환급받게 돼
요. 환급액은 가맹점의 카드사별 카드
대금 지급 계좌를 통해 9월 27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 개업한 업체 중 영
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인된
곳은 18만 3000곳에 달해요. 이에 따
라 총 630억 원, 가맹점별로는 약 34만
원의 카드수수료가 환급될 것으로 보
여요.

여신금융협회는 8월 9일부터 우
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업체에 안내
문을 발송했어요. 환급 여부와 환급
액, 새로 적용되는 수수료율 등이 궁
금하다면 9월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 및 가맹점 매
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또는 각 카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상반기에 신
규 가맹점이 됐다 같은 기간(6월 30일
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
함돼요. 사업장으로 오는 안내문을 못
받아 환급 사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해보세요! 

조윤 기자

저소득 대학생에 ‘주거안정장학금’

청년정책 정비... 일자리·주거 집중 지원

2023년 청년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정책 분야는 ‘일자리(41.5%)’, ‘주거(23.7%)’, ‘복지(11.3%)’, ‘금융(11.2%)’ 순이었다. 가장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구직활동 지원(34.9%)’, ‘청년형 장기적금(12.7%)’이다.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해 활발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가 이런 현실을 반영해 보다 정교하게 개선된 대안을 내놔다. 현재 35개 부처, 356개 과제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정책은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8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방안은 청년들의 정책수요 및 환경변화, 청년정책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수요가 많고 성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뤄졌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정비했고 현금성 지원보다 자생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도 특징이다. 교육, 일자리, 자산형성과 주거, 협업기반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정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의 협업을 통해 재학 단계에서부터 취·창업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노동시장에 대한 조기 진입을 촉진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청년 취업지원 게이트웨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인데, 2025년 대학 전공자율선택제를 확대하는 방향에 맞춰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재학생 맞춤

형 고용서비스)을 50개 대학에서 60개 대학으로 늘린다.

교육부와 고용부의 정보 연계로 운영되는 청년고용오픈케어 플랫폼을 통해서도 미취업 상태인 졸업생을 발굴해 밀착 관리한다. 졸업 후 구직단념 방지를 위해 6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펼친다. 졸업생의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국가장학금 신청 단계에서 제공받은 학생정보를 활용해 졸업 후에도 취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자격증 교육, 취업특강 등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해 전체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한다. 청년 취업 지원 유관기관들이 고용복지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졸업생 등에게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대학 창업팀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부가 창업교육 등을 통해 육성한 대학 창업팀에 중기부가 사업화 자금,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년 일자리 지원

구직단념청년도 살핀다.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단념청년, 취업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안내해 상담을 지원한다.

청년일경험 지원을 위해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 특화된 직무 경험도 제공한다. 청년일경험 대상자를 기존 4만 8000명에서 5만 8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중앙부처·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는 청년일경험 통합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8월 21일 발표한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은 청년들의 정책수요 및 환경변화, 청년정책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수요가 많고 성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뤄졌다.”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고용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중기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청년일자리강소기업(가칭)으로 통합한다. 2024년 말부터 고용부·중기부가 청년일자리강소기업을 공동 선정하고 양 부처의 인센티브를 종합 지원한다. 향후 청년일자리강소기업 중 청년채용 성과 등이 우수한 기업은 청년친화 근무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기업 취업 및 주거·문화생활 패키지 지원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단지 유희시설에 청년 공예가의 오픈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국무조정실은 청년친화도시를 선정해 일자리, 주거, 도시재생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지원한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K-Move 스쿨'을 통해 맞춤형 연수과정을 지원한다. 해외취업자 등이 국내에 복귀한 이후에는 해외경력을 살려 국내기업의 해외전문가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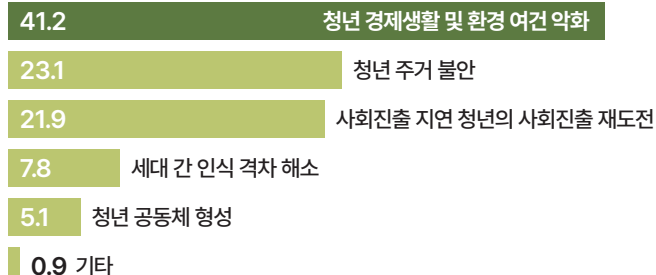
자산형성·주거 지원

저소득 대학생, 군복무 청년 등 정책적 우대가 필요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 지원에도 힘쓴다. 현재 지원 중인 저소득층 청년 대상 월세, 주거급여 지원에 주거안정 장학금을 신설한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고 주거급여 수급가 구원(중위소득 48% 이하)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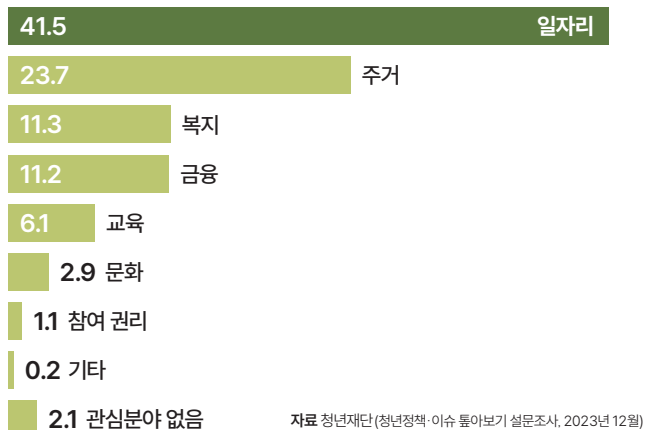
병역 복무 기간 중 군 장병의 급여 적립과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납입한도 상향도 추진한다.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월급으로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을 허용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일시납에 대해서는 일시납입 상한을 완화한다. 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마중물 지원에 힘쓴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전 납입액 일부 인출이 가능한 부분인출서비스를 도입하고 창업 중심 대학과 연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희망자에게 창업교육을 제공한다. 맞춤

2024년 가장 중요한 청년이슈 (단위: %)



청년의 주요 관심 정책 분야 (단위: %)



자료: 청년재단 (청년정책 이슈 토크보기 설문조사, 2023년 12월)

형 금융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도 운영한다.

청년정책 협업 기반 강화

정부는 모든 청년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17개 시·도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전 부처·지역의 청년정책 정보 통합 제공 및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을 본격 개통해 청년들의 정책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부처별 정책소통 및 전달체계도 효율화해 전 지역의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청년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참여 거버넌스·소통을 확대한다. 중앙부처·지자체 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을 늘리고 부처별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정책 참여 및 협력도 강화한다. **K**

임연영 기자

적극행정이 국민의 삶을 이렇게 바꿨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국시 휴대품 신고서 폐지
체납 고지 카카오톡으로

2023년 말 기준 국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 명으로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릴 만큼 가입자 수가 많다. 보험금 청구 건수는 연간 1억 건 이상이다. 그러나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복잡한 탓에 보험금 청구액이 소액인 경우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따른 청구 포기액은 연간 3000억 원에

달한다. 10월부터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가 사라지면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서류를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다.

이는 적극행정의 결과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대로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

서울의 한 대형병원 수납
창구에서 시민들이 서류
발급과 수납 등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일곱 번째)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다. 정부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매년 유공자들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왔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면서 실손보험 전산화가 추진되긴 했으나 의료계·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진척이 없었다. 금융위원회 신상훈 서기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나섰다. 대안을 찾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했다. 신 서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우려가 컸다"며 "이에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하는 대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마침내 2023년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10월 실손보험 전산화 시스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 서기관은 7월 18일 열린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식'에서 훈장을 받았다. 이날 포상식에서 신 서기관을 비롯해 28명(단체 포함)의 공

직자가 포상을 받았다. 이들은 기존의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끈질긴 노력으로 국민안전을 제고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적극행정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있다. 대표 사례들을 소개한다.

민원 해결하고 업무 편의 높이고

2023년 11월부터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방식으로 세금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 서울 노원구청 강문영 주무관은 징수과에서 근무하는 동안 우편발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거주 불일치, 고지서 분실 등 미송달로 인해 납세자가 체납을 인지하고 못하고 이러한 체납 미인지가 다름 민원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자주 목격하면서 개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종이 고지서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강 주무관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도 체납 고지의 수신율을 높일 수 없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했다"며 체납자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체납 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새로운 방식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 서울 노원구청 강문영
주무관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카톡 체납 안내 서비스'는
세금 체납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납세편의를 높였다.
사진 노원구청
(아래) 해외여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자들이 세관 신고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 뉴시스



“언제나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많은 주민을 만나봤고 가정에 방문했을 때
집 안까지 배어 있는 악취를 확인하고 민원을
해결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 결과 카카오톡으로 본인만 확인 가능한 세금 체납 고지를 받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체납 확인과 동시에 모바일 간편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는 납세자 편의 증진과 예산 절감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산 지식이 부족한 직원도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해 업무 편의도 높였다. 실제로 노원구청은 이 서비스를 통해 5억 7000만 원의 초과 징수로 세입 확대 효과를 얻었으며 종이 고지 발송 49만 건 중 20만 건을 모바일로 발송해 연간 5000만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었다. 강 주무관은 “전례가 없어 전자고지를 위한 자료변환 툴과 매뉴얼 등을 제작하는 일은 어려웠지만 납

세자의 납부 편의, 세무당국의 징수 편의를 모두 챙길 수 있어 뿌듯하다”고 했다. 강 주무관은 이번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식에서 신 서기관과 함께 훈장을 받았다.

비용절감에 기업·주민 갈등 해소까지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2023년 5월 1일부터 폐지됐다.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제도가 개선된 것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지난 4월까지 입국한 여행자 3379만 명 중 3339만 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 원을 절약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관세청 양은실 주무관의 적극행정의 결과다. 양 주무관은 “국내 입국 시 해외여행자는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가 거의 99%이나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위험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신고 대상 물품이 없더라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반대여론도 있었지만 입국자 중 98.8%가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점, 기존 통관인력을 마약·테러단속 업무에 재배치할 수 있는 점, 코로나19 이후 외국 여행객 유치를 위해 통관행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꾸준히 설명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청 최민욱 주무관은 관할 내 기업이 폐수처리장 개선공사를 추진하도록 설득해 40여 년간 지속된 악취 민원을 해결했다. 최 주무관은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됐지만 도시가 개발되기 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기업의 폐수처리장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개선을 요구할 수는 없었다”며 “하지만 언제나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많은 주민을 만나봤고 가정에 방문했을 때 집 안까지 배어 있는 악취를 확인하고 민원을 해결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했다. 최 주무관은 기업을 설득하기 위해 민원 발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베스트5

- 1 에너지바우처, 집배원이 노인·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
- 2 인공지능(AI) 활용 긴급해양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 개발
- 3 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 제거
- 4 희귀질환 환자의 자가치료를 위한 해외의약품 수입절차 개선
- 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용가능기관 네이비지도로 검색·예약 가능

자료 국무조정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집배원이 어르신, 장애인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직접 전달하는 정책이 1위를 차지했다. 사진 뉴시스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냉·난방원료 구입비용 바우처는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은 바우처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영진 사무관은 에너지바우처 미수령 가구에 집배원이 방문해 바우처와 제도안내문을 전달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 결과 에너지바우처 미수령 1246가구 중 867가구에 바우처를 전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 과기정통부의 정책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에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8월 7일 '제2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베스트5'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한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체감도, 과제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해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해 우수과제 베스트5를 선정하고 있다. 7월부터 중앙부처 적극행정 사례를 심사해 적극행정 개념과의 부합도와 국민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우수사례 11건을 발굴했고 이에 대해 7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에너지바우처, 집배원이 어르신·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이 1위에 선정됐다. 온라인 국민투표에는 9907명이 참여했다.

2위는 인공지능(AI) 활용 긴급해양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 개발, 3위는 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 제거가 뽑혔다. 해양경찰청 김영태 경사는 AI를 활용해 구조신호를 식별하는 방식을 제안, 추진했다. 기존에는 인력 2명이 해양 구조신호를 24시간 청취하는 방식이어서 구조신호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았다. 김 경사는 과기정통부 데이터사업 등을 활용해 예산을 확보하고 자동식별 시스템을 개발해 해외특허 출원권까지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산림청 최승호 주무관은 전력선 주변에 산불 위험이 큰 나무를 제거한 성과로 적극행정 3위에 뽑혔다. 전력선 주변의 수목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해야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는 위험목 제거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최 주무관은 산림청·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 안전조치 등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을 정비했다. 그 결과 2161본의 전력선 주변 산불 위험목을 제거할 수 있었다.

4위는 '희귀질환 환자의 자가치료를 위한 해외의약품 수입 절차 개선'이 5위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용가능 기관, 네이비지도로 검색·예약 가능'이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선영 사무관은 희귀질환 환자의 자가치료를 위한 해외의약품 수입 절차를 개선했다. 보건복지부 김민혜 사무관은 네이비지도를 활용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용가능 기관을 검색해 예약이 가능하게 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행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생 지역의 객관적인 악취 측정 방안을 만들고 2년간 지속적으로 기업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그 결과 기업의 시설개선사업(약 71억 원)이 진행됐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기업과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최 주무관과 양 주무관은 이러한 적극행정 성과로 이번 포상식에서 포장을 받았다.

이밖에 시·도 경계와 상관없이 사고 현장과 가까운 소방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을 추진한 소방청 정진균 소방령과 완공되지 않은 문화시설에 대해 부가제 매입세액 환급을 추진한 부산광역시(단체)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도로살얼음 등 도로위험 기상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제공하도록 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최득환 실장과 폐기물 소각로 바닥재 막힘 제거장치(특허출원)를 설계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김종훈 차장(공업5급)에게 돌아갔다. K

강정미 기자



8월 2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열린 '2024 파리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출영식'에서 선수들과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계를 넘은 영웅들 '파리의 기적'은 계속된다

밤잠 설치게 만들었던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이하 파리올림픽)의 감동과 여운을 이어갈 '2024 파리 하계패럴림픽(이하 파리패럴림픽)'이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지체·지적장애 등이 있는 운동선수가 참가하는 국제 종합대회인 패럴림픽은 1960년 로마에서 시작해 60년이 넘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중이다. 전 세계 4000여 명의 선수가 22개 종목(양궁, 육상, 배드민턴, 시각축구, 보치아, 카누, 사이클, 승마, 골볼, 유도, 역도, 조정, 사격, 수영, 탁구, 태권도, 트라이애슬론, 좌식배구, 휠체어농구, 휠체어펜싱, 휠체어러비, 휠체어테니스)에서 549개 메달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파리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은 17개 종목 177명(선수 83명, 임원 94명)으로 1988 서울패럴림픽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선수단은 8월 21일 오전 9시 인천국

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영식을 갖고 결전지 파리로 떠나며 선전을 다짐했다. 8월 14일 사전캠프에 참가하는 9개 종목 144명(사전캠프만 참가하는 인원 포함)이 먼저 파리로 출국한 데 이어 이날은 선수단장을 포함한 본진(5개 종목 48명)이 결전지로 향하는 자리였다.

출영식에는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배동현 선수단장, 백경열 선수부단장,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선수단 본진, 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임직원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배 단장은 "오랜 시간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한 우리 패럴림픽 영웅들이 이번 대회의 모든 경기를 후회 없이 즐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있다면 준비된 영웅들이 한계를 넘어 승리할 것"이라고 출정사를 전했다.

역대급 성적을 낸 파리올림픽의 기운을 이어받아 파리패

림픽 선수단 분위기도 좋았다. 휠체어펜싱 국가대표 조은혜는 “패럴림픽에 처음 출전하는데 기대감과 떨리는 마음이 든다. 많은 분이 응원해주신 만큼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장애인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김항태는 “이 종목에 유일하게 출전하는 만큼 책임감을 느끼며 대회에 임할 것”이라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애인 스포츠 강국 위상 되찾을 것”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파리패럴림픽의 목표를 금메달 5개 이상 획득, 종합순위 20위권 진입으로 삼았다. 2020 도쿄패럴림픽에서 금메달 2개에 그쳤던 성적을 만회하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각오다. 1988 서울패럴림픽부터 2008 베이징패럴림픽까지 6회 연속 두 자릿수 금메달을 획득했던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 스포츠 강국으로서 위상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한국 선수단의 최연소 선수는 2005년 1월 12일생인 보치아의 서민규이고 최고령 선수는 1960년 3월 9일생인 양궁의 김옥금이다. 금메달 후보로는 패럴림픽 9연패에 빛나는 보치아 종목 BC3(사지마비) 페어 강선희·정호원이 꼽힌다. 보치아 대표팀은 1988 서울패럴림픽부터 2020 도쿄패럴림픽까지 9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 세계 보치아 대표팀 중 가장 많은 금메달(10개)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네 개의 메달을 목에 건 정호원은 다섯 번째 패럴림픽에서 3회 연속 금메달을 노린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종목인 사격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5월 창원에서 열린 2024 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에서 이 부문 금메달을 목에 건 조정두는 공기권총 SH1(척수 및 기타 장애) 개인전과 혼성전 두 종목에서 메달을 노린다.

지난 도쿄패럴림픽에서 탁구 MS1(남자 지체장애 등급1) 금메달리스트 주영대도 유력한 금메달 후보다. 2023년 열린 항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APG)에서 여자단식과 여자복식, 혼성복식에서 금메달을 싹쓸이하며 3관왕에 오른 서수연(W2·여자 지체장애 등급2)의 금빛 스매시도 기대해볼 만하다. 또 2005년부터 꾸준히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배드민턴 WH1(척수장애) 남자단식 세계랭킹 1위 최정만의 메달 도전도 눈여겨볼 만하다. **[K]**

임연영 기자



8월 2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2024 파리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이 출영식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대한장애인체육회

레전드 마무리 투수 오승환의 응원

“준비한 모든 것 마음껏 펼칠 수 있게” 2000만 원 후원

“장애인 스포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는 약속을 이번 에도 지킬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2024 파리패럴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준비한 모든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다.”

아시아 단일리그 최다 세이브 기록 보유자인 대한민국 레전드 마무리 투수 오승환(삼성라이온즈)이 파리패럴림픽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발전을 위해 총 2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한다.

2016년부터 대한장애인체육회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인 오승환은 휠체어테니스 및 기초종목 육성 등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오고 있는 장애인 스포츠의 든든한 후원자 중 한 명이다. 오승환은 2016년 휠체어테니스 임호원에게 1000만 원을, 2018년 임호원·신의현에게 각각 1000만 원을 후원했으며 기초종목 육성을 위한 후원도 시작해 현재까지 장애인체육을 위해 총 후원금 7000만 원과 240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후원전 달 행사는 현재 프로야구 시즌 중임을 감안해 시즌 종료 후 개최할 예정이다.

오리탕도 싹싹 삼형제 아침 밥 영상으로 구독자 55만 “아이들이 주는 행복 말로 할 수 없어요”



서울시 '다둥이 가족'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박기태·유수연 부부의 가족사진. 사진 유수연

사진 속에서 세 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다. 세 아이를 감싸고 있는 부모의 손에는 곧 태어날 아이의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다. 박기태(34)·유수연(31) 부부가 남긴 행복한 순간의 기록이다. 이 사진은 지난 5월 서울시 '다둥이 가족' 사진 공모전에서 사진 분야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제목은 '삼형제네 집에 막내딸이 찾아왔어요!'다.

해당 사진은 삼형제 다둥이 가족에게 또 한 번 찾아온 탄생의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잘 포착해 심사위원회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심사에 참여한 정효근 사진작가는 “이번 심사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출산과 양육의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의 가치와 기쁨의 확산성”이라며 “수상작을 통해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전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송파구 한 스튜디오에서 이들 가족을 만났다. 세 아이는 스튜디오가 마냥 신기한지 구석구석을 누비며 신나게 뛰어놀았다. 첫째 곁이(4) 군과 둘째 도이(3) 군이 이곳저곳을 둘러보자 막내 환이(2) 군도 이리 쿵, 저리 쿵 넘어지면서 형들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막내가 부딪힐까 노심초사, 아버지 박 씨가 그 뒤를 쫓았다.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부의 얼굴에도 미소가 만연했다.

“정신없죠? 사내아이들이라 그런지 에너지가 넘쳐요.”

어머니 유 씨가 넷째 임신으로 볼록 나온 배를 문지르며 입을 열었다.

유 씨는 누리소통망(SNS) 인스타그램에서 ‘해 뜨기 전부터 챙겨먹는 수연이네’로 알려진 인플루언서다. 매일 아침식사 요리 과정과 세 아들의 식사 장면을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올리는데



박기태·유수연 부부와 (오른쪽부터) 결이·도이·훤이 군. 사진 C영상미디어

구독자가 55만 명이 넘는 정도로 인기가. 쉽고 간단한 요리 레시피로 주부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름 앞 글자를 따 ‘결도훤’으로 불리는 삼형제가 먹음직스럽게 밥 한 술 떠먹는 장면이 화제다. ‘잘 먹는 아이들을 보니 행복하다’,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는 반응들 일색이다.

실제 영상을 보면 아이들은 파, 호박, 가지 등 가리는 음식 없이 엄마가 해준 밥을 남김없이 싹싹 비운다. 입에 음식을 한가득 넣고 눈웃음과 함께 엄지를 척 들어올리며 “맛있다”는 요리

평도 잊지 않는다. 삼형제의 아침식사 장면에 절로 ‘엄마 웃음’이 난다.

“남편의 퇴근이 늦은 편이라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아침에 꼬박꼬박 식사를 챙기게 됐어요. 입이 짧았던 첫째도 제가 한식으로 아침 밥상을 차려준 이후론 편식 없이 다 잘 먹어줘서 뿌듯해요.”

간호사였던 유 씨는 2023년 10월에 퇴사하며 본격적으로 아침식사 영상을 제작해 SNS에 올리고 있다. 영상을 공유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올린 유 씨의 주특기 ‘오리탕’ 영상이 조

“육아에 완벽이란 없어요. 아이를 완벽하게 키우려는 건 욕심이에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부모보다 부족한 점을 아이들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회수 200만 건을 넘어서면서 구독자가 급격히 늘었다. 댓글도 평균적으로 400개 이상 달린다. 다둥이 가족의 알콩달콩한 일상에 ‘자녀 계획이 없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 ‘(영상을 보고) 셋째를 고민 중이다’라며 출산을 고민하는 이들의 댓글도 눈에 띄게 늘었다. 어쩌다보니 이들의 행복한 일상이 출산장려 붐을 일으킨 셈이다.

“첫째를 키울 땐 힘들었지만 둘째는 압전편이라 수월했어요. 육아를 마스터한 줄 알고 셋째를 계획해서 낳았죠. 하하. 셋째는 활동량이 많아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 셋이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만 봐도 마냥 행복해요. 그래서 넷째를 갖게 됐고요. 아이를 키우다보면 보람된 순간이 많아요. 아이가 ‘엄마 밥이 최고다’, ‘오늘도 엄마, 아빠랑 같이 놀아서 행복했다’고 말할 때면 힘든 순간을 다 잊게 돼요.”

물론 자녀가 셋이나 되다보니 걱정도 많다. 아이들이 클수록 경제적 부담이 드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씨는 최근 육아휴직을 하고 가사를 돕고 있다. 박 씨는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지만 정부의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아요. 우리는 임신부 교통비를 80만 원 지원받았고 전기요금 30%, 난방비 월 4000원을 할인받고 있습니다. 또 다자녀우대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공공시설의 입

장료나 수강료를 무료 또는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생각 이상으로 혜택이 다양해 놀랐습니다. 이런 제도가 좀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지면 좋겠어요.”

박 씨의 말처럼 저출생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 아이돌봄 서비스, 자녀세액공제, 자동차취득세 할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등이 있고 다자녀가구의 기준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지원하고 있다.

물론 출산율 상승이 경제적 지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박 씨도 “여전히 아이 때문에 조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육아휴직을 이야기할 때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며 “회사에서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기에 넷째도 가능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이면 딸이 세상에 태어난다. 삼형제에 이어 넷째를 딸로 맞아 기쁜 마음에 태명을 ‘대박’이라 지었다. 부부는 “첫째 때 아이 옷을 사보고 이후로는 다 물려 입혔다. 딸이라 새 옷을 장만해야 하는데 어떤 옷을 살지 벌써부터 기대된다”며 웃었다. 곁에 있던 첫째 곁이가 “동생이 태어나면 예뻐해줄 거예요”라며 의젓하게 말했다.

다자녀가구 지원 제도 꼼꼼하게 챙기세요!

정부가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 챙겨야 할 법령이나 제도가 늘었다. 꼼꼼하게 혜택을 챙겨봐야 한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기존 단태아(태아 1명) 100만 원, 다태아(태아 여러 명) 140만 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늘려 쌍둥이라면 60만 원을 더 받게 됐다.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출산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후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쌍둥이는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아이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1명 연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이면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까지 공제된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7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차취득세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 한 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은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도 있다. 다둥이 가정을 위해 신생아 수에 맞게 일대일로 최대 4명의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기간도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했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자녀 가구는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할인 혜택도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12세 미만의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다. 12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또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 전기·가스요금 할인은 물론 철도 운임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도 할인받는다.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태아당 **100만 원**, 출산(예정)일부터 2년 이내 사용

첫만남 이용권

첫째 자녀 **200만 원**, 둘째 자녀 이상 **300만 원**

예) 쌍둥이 → 20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

| 구분 | 1명 | 2명 | 3명 |
|------|---------|---------|-----------------------------|
| 공제금액 | 연 15만 원 | 연 35만 원 | 연 35만 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첫째 연 30만 원, 둘째 연 50만 원, 셋째 이상 연 70만 원

자료 법제처

“육아에 완벽이란 없어요. 아이를 완벽하게 키우려는 건 욕심이에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부모보다 부족한 점을 아이들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출산을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면 겁먹지 말고 도전하길 바라요.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아이가 주는 행복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거든요.”

“건강하고 당찬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부부의 바람대로 ‘까르르 까르르’ 활기찬 삼형제의 웃음소리가 스튜디오 안을 가득 메웠다. **[K]**

서경리 기자

의료사고 때 환자 돕는 ‘대변인’ 신설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8월 21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관으로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가 열렸고 8월 22일에는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이 개최돼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개혁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먼저 8월 21일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3년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해 상급종합병원 인력구조를 재설계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20%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시행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나 3차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등 5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진료 분야에서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은 39%에 그친다. 정부는 3년 안에 중증환자 비율을 6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진료 협력에 관해서는 중증도에 맞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 판단에 따른 전문 의뢰 시 상세 의사 소견을 명시하고 진료 협력 병원 간에는 최우선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중은 줄어든다.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허가 병상이 1500병상 이상인 경우 일반병상의 15%를 감축하고 그 외 병원은 10%, 비수도권은 5%를 감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 과장은 “당장 의무적으로 감축하기보다 중증환자 병상 비중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인력구조는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유 과장은 “전문의를 채용하기보다 현재 있는 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고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업무구조를 팀 구조로 재설계해 현행 인력구조하에서 의료 질을 높이고 중증환자를 잘 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비중은 줄일 계획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비중은 많게는 40%대에 이른다. 이를 절반으로 줄이고 수련생으로서 전공의 지위를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전공의 근무시간은 주당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밀도 있는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전문의를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방안도 함께 개편하고 있다.

?

진료지원(PA) 간호사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등 분야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해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다.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일시 2024. 8. 21.(수), 14:00~17:30

장소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문화체육관광부
mct.go.kr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21일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중환자실과 입원료 보상에 1조 5000억 원, 중증 수술 보상에 5000억 원, 사후 보상에 1조 원 등을 할당해 총 3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부담 줄이고 보상은 늘리고

8월 22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환자와 의료진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도 치료계획과 그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사고 이후의 설명에 관해서는 재판과정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정부는 유감이나 사과 등을 표명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분쟁조정제도도 개편된다. 의료분쟁조정 제도는 의료사고 소송이 증가하면서 의료진의 중증·응급진료 기피 등을 해소하고자 2012년도 도입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돼왔다. 정부는 의학·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돕기 위해 '환자 대변인' 신설을 추진하고 필요에 따라 의료인·의료기관 상담도 병행한다. 환자 대변인은 사망 등 중상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환자나 가족이 인과성을 판단할 핵심 쟁점 등을

담은 조정 신청서와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보상과 관련해서도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기관의 고액 배상 부담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의료사고 배상액은 약 3억 7000만 원에 이른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은 300명상 미만의 병원만 가능해 중증진료를 받는 300명상 이상 의료기관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필수진료 과목 의료진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공제 보험료의 국가 지원을 추진하고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 표준약관을 마련해 보험상품 개발·운영을 활성화한다. 불가항력에 따른 분만사고의 경우 낮은 국가 보상금 한도를 현실화하고 보상 범위도 늘린다.

의료사고 수사 절차도 합리화된다. 높은 수준의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사고 특성을 고려해 의료분쟁 조정 과정과 연계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의료분쟁 감정·조정 결과를 수사과정에서 공유받아 불필요한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기소 전 의료전문가가 참여한 형사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사고 형사 특례도 법제화해 의료진이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K**

김효정 기자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최수영 단장

“수학은 지성의 기초체력 0.001% 세계 영재들의 경쟁 한국 개최 추진”

역시 대한민국은 수학 강국이다. 영국에서 개최된 2024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땀다. 13년 연속이다. 종합 성적은 108개 참가국 중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IMO는 매년 7월 전 세계 수학영재들이 실력을 겨루는 대회다. 학부 미만 학생들의 수학경시대회 중 위상이 가장 높다. IMO 금메달 수상자가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 수상

자로 이어지기도 한다. 1959년부터 시작해 올해가 65회째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참가했다. 개최지는 매년 바뀐다. 올해는 영국 바스에서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열렸다.

2000년에는 한국에서도 개최했다. 한국대표팀이 두각을 드러낸 건 이 무렵부터다. 1988년 종합순위 22위로 시작해 2000년대 초부터 5위권 안팎에 안착하기 시작했다. 2012년과 2017년에는 1위에 등극하는 쾌거도 이뤘다.

IMO는 여타 세계선수권 대회와 다르게 국가별 참가 인원이 정해져 있다. 최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동일하게 6명만 참가한다. 국가대표 6명에 속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네 번의 시험을 거쳐 후보로 선정된 후 또 세 번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대표단 선수를 ‘상위 0.001%의 영재’라 칭하는 것도 그래서다. 이들은 각 나라의 기초과학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가 된다.

IMO 한국대표단 최수영 단장은 “IMO는 단순히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 시험이 아니라 각국 수학영재교육 수준의 바로미터가 되는 대회”라면서 “108개국 중 3위가 ‘108명 중 3등’의 의미 그 이상인 이유”라고 했다.

아주대 수학과·AI모빌리티공학과 교수이자 입학처장인 최 단장은 2015년부터 IMO 부단장



전원 메달을 수상한 한국대표단 선수들. 왼쪽부터 박경준(서울과학고2·금메달)·진영범(서울과학고3·은메달)·주형조(서울과학고3·금메달)·최현우(서울과학고3·은메달)·정유찬(서울과학고3·은메달)·함우주(서울과학고2·은메달) 군.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수영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단장,
아주대 수학과·AI모빌리티공학과 교수인 그는
2023년부터 세계 무대에 선 수학영재들을
지도 중이다. 사진 C영상미디어

으로 참가하다가 2023년 단장직을 맡았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어갈 최상위권 학생들을 지도하게 돼 뿌듯하다”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단장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만큼 태극마크의 무게감도 느낀다”고 했다.

수학 문제인데 금·은·동메달로 나뉘는 이유가 뭔가?

올림픽 체조에 ‘몇 점짜리 연기’가 있듯 수학에도 ‘몇 점짜리 풀이’라는 게 있다. 대회에는 총 6개 문제가 나온다. 대수, 기하, 정수론, 조합 같은 고난도의 문제다. 6개 문제를 푸는 데 9시간이 주어진다. 하루 4시간 30분씩 이틀에 걸쳐서 치러진다. 이 과정에서 완전히 푸는 학생도 있고,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아예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특정 단계에 도달하는 절차가 곧 실력으로 평가된다. 통상 참가학생의 12명당 1명이 금메달을 받고 6명당 1명이 은메달을 딴다.

각 시험일의 마지막 문제인 3번, 6번 문항이 가장 어렵다고 들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

올해는 특히 3번이 더 어려웠다. 수열의 특징을 알아내는 문제였다.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 1시간 반 동안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3명 이하라고 본다.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1%가 안될 거다. 이번에 한국 학생들은 3번 문제를 잘 풀어냈다.

부단장 시절부터 헛수로 10년간 수학영재들을 봐왔는데 우리나라 영재들의 특징이 있나?

딱 잘라 구분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입상이라는 목표의식이 강한 편이다. 물론 그 저변에는 수학에 대한 어마어마한 열정과 충성도가 깔려 있다. 대회 출전지에서 학생들은 하루 종일 수학의 원리를 논한다. 흔히 수학영재라고 하면 ‘너드(nerd)’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놀랄 정도로 사회성이 뛰어나다. 이 세계에는 반드시 자기보다 뛰어난 이가 있기 마련이다. 그 친구에게 배워야 자신이 더 발전한

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배우려는 분위기다. 때문에 겸손하다. 아는 게 많아질수록 배워야 할 게 늘어나므로 교만해질 틈이 없다.

우리나라 수학실력을 전반적으로 평하자면?

대체로 과거에 비해 크게 신장했다. 세부적으로는 프로수학자, 수학영재, 일반학생 중 기준을 뒀을 때 두느냐에 따라 답이 다를 수 있다. IMO로 한정한다면 약 10년 전부터 5위권을 유지하며 세계 최강국 위치까지 올랐다. 프로수학 분야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실제로 세계수학연맹(IMU)은 2022년 한국 수학의 국가 등급을 최고등급인 5그룹으로 승격했다. 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등 12개국과 함께 5표의 투표권도 행사한다. 물론 아직 세계수학을 선도하는 레벨까지는 아니지만 성큼 다가선 모양새다.

IMO 수상자들의 수학과 진학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우스갯소리로 ‘너무 수학과로만 가서 문제’라고 할 정도다. 지난해 금메달을 받았던 학생 3명도 모두 수학과에 진학했다. 흔히 IMO 공부해서 결국은 의대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한다. 근래 수상자 중 의대에 진학한 비율은 10%도 안된다.

‘IMO 메달 또한 결국 사교육의 힘’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한국 사교육의 초점은 ‘어떡하면 수능을 더 빨리 정확하게 푸느냐’에 맞춰져 있다. IMO 대표단은 이러한 사교육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공부를 웬만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학생 스스로 수학에 깊이 빠져야 한다. 한번 발을 들인 학생이 수학 외의 진로로 잘 안 가는 것도 그래서다. 이 학생들이 기초과학의 미래를 여는 인재가 되고 그런 인재의 총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IMO는 중요하다.

IMO 성적이 대학 입시에 유리하게 작용하나?

IMO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대표단 선수들은 외려 대학입시에서 불리한 위치다. 입시과정에서 그 어떤 수상기록도 기재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 정도가

“IMO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대표단 선수들은 외려 대학입시에서 불리한 위치다. 자연히 대회 참가의 동기부여가 낮아지고 1, 2위 국가와의 격차도 점차 벌어지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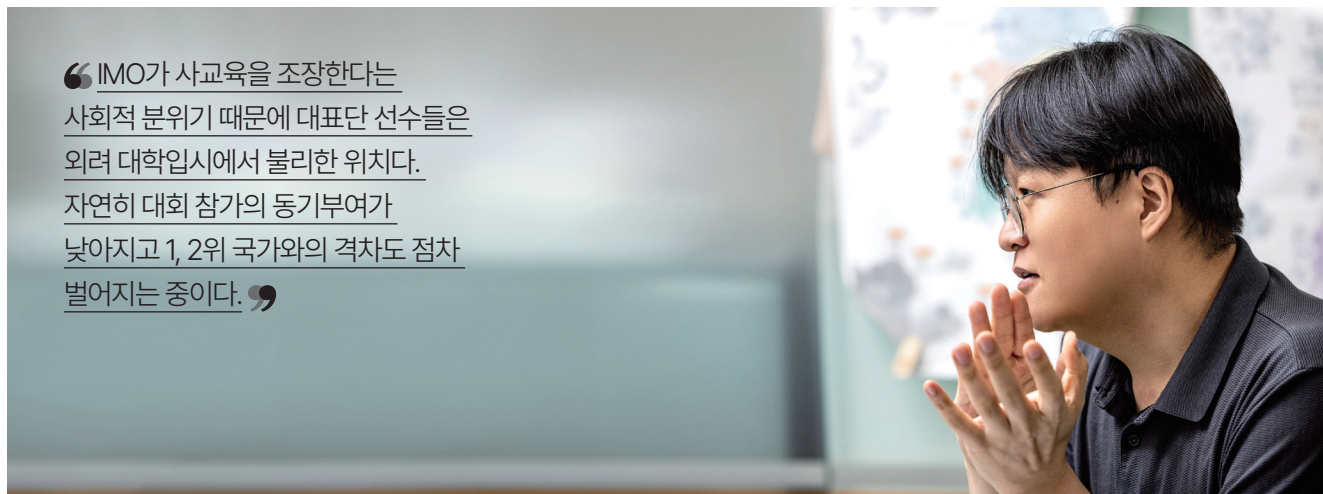


사진 ©영남미디어

아니라 수상 여부를 드러내면 페널티를 받는 구조다. 특수성보다 공정성에 집중하다보니 IMO를 공부할수록 대한 진학에서는 손해를 보게 됐다. 대회 참가지에서 부랴부랴 학교 숙제를 하는 학생도 봤다. 전 세계 수학천재들이 참가하는 대회를 앞두고 내신을 걱정하는 모습이 충격이었다. 자연히 대회 참가의 동기부여가 낮아지고 1, 2위 국가와의 격차도 점차 벌어지는 중이다. 그동안의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입시부담을 덜어주는 환경 조성에도 사회관심도 절실하다.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았다. 올해도 수학에서 킬러문항이 배제된다고 하는데.

찬성이다. 수능문제는 너무 어려우면 안된다. 킬러문항이 생긴 배경부터 따져봐야 한다. 수능의 목적은 학생들 줄 세우기다. 애초에 학교에서 많은 걸 가르치면 쉬운 문제만으로도 줄을 세울 수 있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점차 축소돼 왔다. 한정된 영역 내에서 석차를 매기려다 보니 문제를 비틀 수밖에 없었던 거다. 이는 교육적 목적과도 부합지 않는다.

수학머리는 타고난 건가? 키워지는 건가?

수학천재와 같은 극상위 수준을 제외하면 나머

지는 어느 정도 훈련으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본다. 달리기와 비슷하다. 누구나 뛸 수 있지만 빠른 사람도 느린 사람도 있다. 훈련한다고 모두 우사인 볼트가 될 순 없지만 기록을 앞당길 수는 있다.

인공지능이 사고력과 논리력이 필요한 수학 증명까지 해내는 시대다. 인간이 수학을 계속 탐구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보편적인 교육으로의 수학은 지성의 기초체력이 되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 이 체력들이 모여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 학문으로서의 수학도 꾸준히 탐구해야 한다. 수학이 없다면 이미 존재하는 기술의 한계를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

IMO의 한국 유치 계획이 있나?

올해 대회에서 유치 신청서 제출과 함께 개최지로서의 조건을 피력하고 왔다. IMO 또한 다른 세계선수권 대회와 마찬가지로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2030년까지 개최국이 정해져 한국 개최는 빠르면 2031년에 가능하다. 한국 개최 추진이 IMO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를 통해 수학이 단순히 교육과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문화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길 바란다. **[K]**

박지현 기자

탄소중립 해결사! 소형 모듈 원자로가 주목받는 이유

“세계가 SMR에 주목하는 이유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원자로라는 데 있다. 원전은 우라늄이 발생할 때 생기는 에너지로 물을 끓이고 수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김형자

<Newton> 편집장 출신으로 과학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과학 칼럼니스트. <구명으로 발견한 과학>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한국이 원전산업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7월 17일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됐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원전 수출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번이 없는 한 최종 수주도 따내게 된다.

체코에 건설되는 원전은 1000메가와트(APR1000)급 원자로다. 이는 웬만한 국가의 전력 규모로는 수용하기 힘든 큰 용량이다. 최근엔 소규모의 원자로도 급부상하고 있는데, ‘소형 모듈 원자로’가 그것이다.

안전성, 친환경성, 넓은 응용 범위가 장점

소형 모듈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SMR)는 전기 출력이 300메가와트(MW) 이하급인 원자로(Reactor)를 말한다.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Modular)해 건설할 수도 있다. 기존 대형 원자로와 비교했을 때 규모가 작아 건설 기간이 짧고 필요한 부대 장치도 적어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다. 이 때문에 대형 원전의 단점을 보완한 차세대 원자로라는 평가를 받는다.

SMR의 큰 장점은 안전성이다. 가압기·냉각펌프·증기발생기 등이 원자로 외부에 배관으로 연결된 대형 원전과 달리 SMR은 원전을 구성하는 여러 기기를 하나의 압력용기에 집어넣은 일체형 구조다. 각각의 장치를 연결하는 배관이 외부로 나오지 않아 냉각제 배관 파손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고에서 비교적 안전하다.

또 SMR은 핵분열 연쇄반응으로 발생한 열을 식히는 노심냉각에 자연현상을 이용할 수동 안전시스템이 도입돼 있다. 이를테면 지진이나 쓰나미로 전력 공급이 끊겨도 원자로가 지하 수조 등 밀폐된 곳에 들어 있어 자연적으로 물이 순환하면서 냉각돼 폭발할 위험이 없다.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 설계로 인해 방사선 영향을 부지 반경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SMR은 일체형이라 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작, 현장으로 가져가 곧바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이는 건설 기간 단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을 배가시킨다. 또 비교적 작은 부지에 건설할 수 있어 수요지 인근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계가 SMR에 주목하는 이유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원자로라는 데 있다. 원전은 우라늄이 발생할 때 생기는 에너지로 물을 끓이고 수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더구나 SMR은 유연한 출력 조정이 가능해 전력 수요에 따라 모듈 일부만 가동할 수 있다.

전력 생산에 쓰지 않는 모듈은 지역난방이나 산업단지에 열원을 제공하거나 수소 생산을 위한 고온 전기분해, 해수담수화에 쓸 수 있다. 또 최근에는 SMR을 탄소배출 규제가 심해지는 해상운송에 사용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출력이 들쭉날쭉할 때 이를 메워주는 역할도 가능하다.

SMR은 199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했다. 처음의 개발 목적은 대형 원전을 지을 수 없는 환경, 예를 들어 극지나 오지, 해양 등에 전력·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한 원전 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각국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친환경 원자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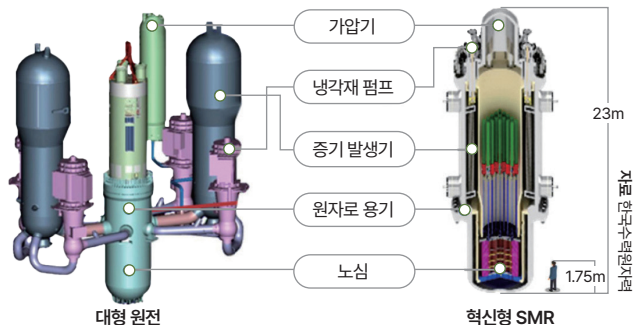
정부 2조 5000억 원 지원 4세대 SMR 밀어준다

SMR은 고온의 열을 흡수할 냉각재로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네 개 유형으로 나뉜다. 가압경수로(PWR), 용융염원자로(MSR), 소듐냉각고속로(SFR), 초고온가스로(VTR) 등이다. 이 같은 SMR은 구현하려는 목표일 뿐 아직 현실화된 것은 아니다.

3세대 원자로인 가압경수로로는 기존 대형 원전처럼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기술을 응용하기 때문에 정부 인허가를 받기 쉬워 개발 속도가 빠른 편이다. 4세대 원자로인 용융염원자로로는 냉각재로 용융염을 사용한다. 고체 핵연료 대신 염화물에 핵연료를 녹여 활용한다. 4세대 소듐냉각고속로는 냉각재로 액체 소듐을 사용한다. 나트륨·납 등을 사용하는 고속로도 있다. 역시 4세대인 초고온가스로는 헬륨·질소 등을 냉각재로 쓴다.

현재 세계 각국은 SMR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SMR)



임이 활발하다. 특히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한국 등 주요 원전 국가들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전 세계 18개국에서 80여 종의 SMR 모델이 개발 중이다.

이 가운데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경수로 방식의 3세대 SMR은 대체로 203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혁신형 SMR(i-SMR)', SMR의 선두주자인 미국 뉴스케일파워의 50·77MW급 SMR, 영국 롤스로이스와 프랑스 누워드의 SMR 등이 있다. 최근엔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비경수형 SMR 개발이 대다수다.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원자로로는 소듐냉각고속로, 헬륨 기체를 냉각재로 사용해 열 생산에 특화된 초고온가스로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기업 '테라파워'의 용융염원자로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차세대 SMR의 상용화를 위해 2조 5000억 원 규모의 실증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힘입어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합심해 내년까지 물로 원자로를 식히는 3세대 '혁신형 SMR'의 표준설계를 마치고 2028년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물이 아닌 냉매를 사용하는 '4세대 SMR' 개발도 속도를 낸다. 현재 고온가스로(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HTGR)의 핵심기술 개발을 마친 상태고 내년엔 실증로 개념 설계가 완성될 예정이다. 2027년 실증로 기본 설계를 거쳐 2033년 상용화가 목표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성원이 뒷받침된다면 한국은 분명 세계 SMR 시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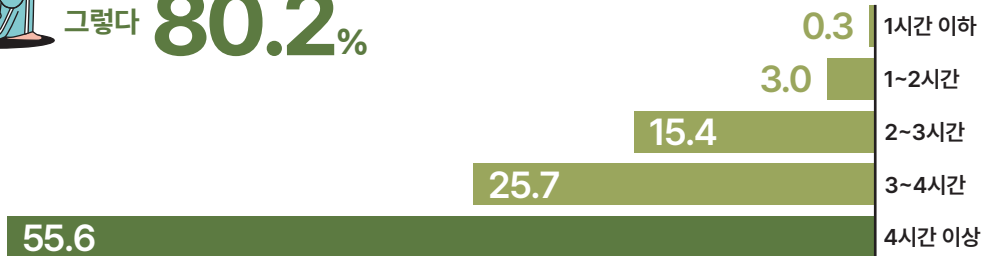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 **80.2%**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 정도 사용하나요?

(MZ세대 참여자 369명 대상, 단위: %)



“나는 스마트폰 중독” 80.2% “샤워할 때도 스마트폰 봐요”

스마트폰 없는 하루, 상상이 가나요? 친구들과 수다 떨기부터 음악과 영화 감상은 물론 회사 업무 처리까지 이 모든 게 작은 기기 하나로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편리함에는 ‘중독’ 등 부작용도 따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두고 독서나 대화에 집중하는 ‘스마트폰 디톡스’ 체험 카페도 등장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을까요? MZ세대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자세히 알아봤어요.

“주로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 46.1%

우선 하루 평균 스마트폰 잠금해제 횟수부터 살펴볼까요? 무려 64.8%가 ‘셀 수 없이 자주’라고 했어요. 10회 이하라고 답한 사람은 고작 0.3%에 불과했어요. 잦은 잠금해제는 스마트폰 확인이 무의식적인 습관이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주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건 스마트폰 중독의 신호일 수 있어요. 친구의 연락이나 직장에서의 알림, 혹은 재미있는 일들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게 되는 건데 습관적이고 강박적인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하루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도 상당해요. 55.6%가 ‘하루

4시간 이상’이라고 답했어요. ‘1시간 이하’는 0.3%뿐이었죠. MZ세대의 일과 중 상당 부분을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7~8시간 수면을 취한다고 가정하면 깨어 있는 시간의 4분의 1을 스마트폰과 함께 보내는 셈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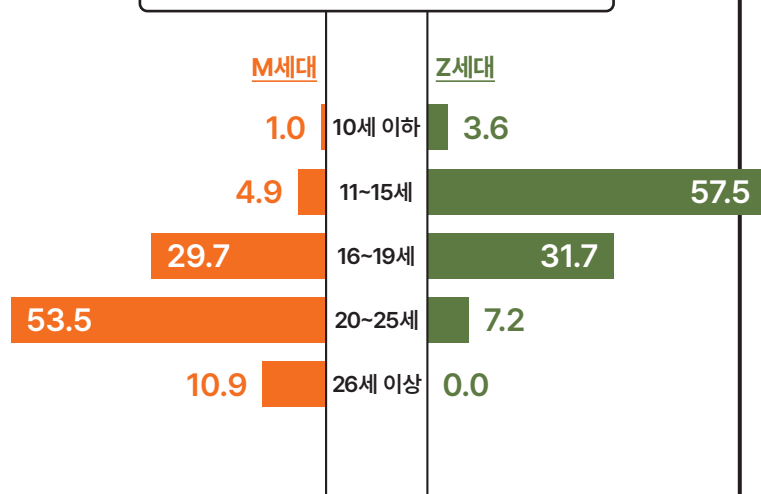
그렇다면 언제 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까요? 스마트폰 사용 패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눈에 띄는 건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이에요. 무려 46.1%가 이 시간에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답했어요. 저녁 시간대 사용자 27.6%까지 더하면 대부분 하루 일과를 마친 후 휴식 시간에 스마트폰을 즐기는 셈이죠. 그리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는 답변도 21.1% 나왔어요.

흥미로운 점은 80.2%가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다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 중 36.3%는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했어요. ‘아니다(2.4%)’ 또는 ‘전혀 아니다(0.3%)’라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적었어요. MZ세대 스스로도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자각하고 있는 셈이죠. 이런 현상은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보여요. 누리소통망(SNS)으로 소통하고 모바일로 쇼

어피티는 MZ 맞춤형 경제 콘텐츠를 뉴스레터에 담아
매일 아침 50만 구독자에게 보내는 MZ세대 대표 경제 미디어입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접한 나이는 언제인가요?

(M세대 202명, Z세대 167명 대상, 단위: %)



핑하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영상을 즐기는 등 일상의 모든 것을 스마트폰 안에서 해결하니깐요.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에 파고든 지도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 MZ세대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처음 접한 시기가 제각각이었어요. Z세대는 57.5%가 11~15세 사이에, M세대는 53.5%가 20~25세에 처음 스마트폰을 접했다고 답했어요. 이 같은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경험에 있어서 MZ세대를 하나의 집단으로 바라보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을 언제부터 사용했느냐에 따라 디지털 경험과 활용 능력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 결과로 보면 Z세대는 스마트폰과 함께 자라며 삶의 방식 자체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형성된 '디지털 네이티브'이고 M세대는 '디지털 이주민'에 가까워요. 성인이 된 후 스마트폰을 접하면서 기존의 생활방식에 디지털을 접목시키는 과정을 거친 셈이죠.

스마트폰 이점? 정보 접근성!

스마트폰 사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MZ세대는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어피티가 **369**명의 MZ세대에게 물었습니다.

* 8월 9~15일 어피티 머니레터 구독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Q 스마트폰 얼마나 자주 사용하나요?

하루 평균 몇 번 정도 스마트폰 잠금화면을 해제하나요?

- ① 10회 이하 ② 10~20회 ③ 20~30회 ④ 30~40회 ⑤ 셀 수 없이 자주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 정도 사용하나요?

- ① 1시간 이하 ② 1~2시간 ③ 2~3시간 ④ 3~4시간 ⑤ 4시간 이상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 ① 아침 ② 점심 ③ 저녁 ④ 잠들기 전 ⑤ 하루 종일

처음 스마트폰을 접한 나이는 언제인가요?

- ① 10세 이하 ② 11~15세 ③ 16~19세 ④ 20~25세 ⑤ 26세 이상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스마트폰을 보나요?(중복 선택 가능)

- 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 ② 샤워를 할 때 ③ 길을 걸어갈 때
④ 식사 중에 ⑤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나요?

- ① 매우 불가능하다 ② 약간 불편하다 ③ 보통이다
④ 가능하다 ⑤ 전혀 문제 없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업무 및 학업 ② 소셜네트워킹 ③ 엔터테인먼트
④ 생활 편의 ⑤ 정보 수집 ⑥ 기타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인가요?

- ①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다 ② 사람들과의 소통이 활발해졌다
③ 엔터테인먼트를 언제나 즐길 수 있다 ④ 업무 능력과 생산성이 향상됐다
⑤ 생활 편의성이 높아졌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느낀 단점은 무엇인가요?

- ① 수면 부족 ② 오히려 사회적 고립감을 느낀다 ③ 집중력이 떨어진다
④ 손목 통증, 안구 건조 등 신체적 피로 ⑤ 시간 낭비

스마트폰 사용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① 일정한 시간에만 사용 ② 스마트폰 사용 대신 운동, 독서 등에 시간 할애하기
③ 중요한 일에 집중할 때는 스마트폰 끄기 ④ 스마트폰을 멀리 두기
⑤ 노력하고 있지 않다 ⑥ 기타

스마트폰을 몇 세부터 사용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 ① 5세 미만 ② 5~8세 ③ 8~13세 ④ 14~16세
⑤ 17~19세 ⑥ 2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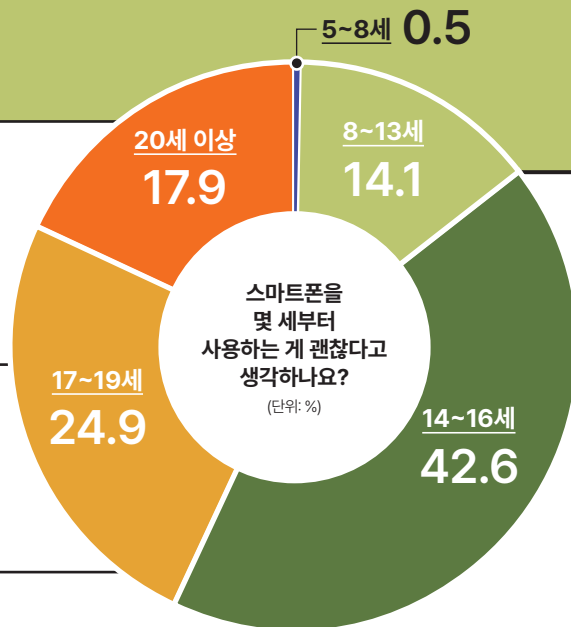
MZ세대 참여자 369명의 대답은?

➔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인가요?

| | |
|--------------|---------------|
| 정보 접근성 향상 | 엔터테인먼트 접근성 향상 |
| 36.3% | 30.4% |

➔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느낀 단점은 무엇인가요?

| | |
|--------------|--------------|
| 시간 낭비 | 집중력 저하 |
| 33.4% | 32.0% |



(299명) 길을 걸어갈 때(230명)와 식사 중(269명)에도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76명은 샤워할 때도 사용한다고 답했어요.

이들이 과연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요? 76.5%가 '매우 불가능하다(30.4%)' 또는 '약간 불편하다(46.1%)'고 답했고 '전혀 문제없다'는 2.4%에 불과했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40.4%가 '엔터테인먼트'를, 24.7%가 '소셜네트워킹'을 꼽았어요. 주로 재미를 위해, 소통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생활 편의(15.2%)'와 '정보 수집(11.1%)'이 뒤를 이었어요. 반면 '업무 및 학업'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어요.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이점은 뭘까요? 36.3%가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답했어요. '언제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다(30.4%)', '생활 편의성이 높아졌다(25.2%)'가 그 뒤를 이었어요. 흥미로운 건 '사람들과의 소통이 활발해졌다'는 응답이 6.5%에 그쳤다는 거예요. 소셜네트워킹이 스마트폰 사용의 주된 이유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통이 활발해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죠.

스마트폰 사용의 단점으로는 '시간 낭비(33.4%)'와 '집중력이 떨어진다(32.0%)'를 많이 꼽았어요. '신체적 피로(20.3%)'와 '수면 부족(10.8%)'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됐죠.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 대신 운동, 독서 등에 시간 할애(37.4%)', '스마트폰을 멀리 두기(13.8%)', '중요한 일에 집중할 때는 스마트폰 끄기(13.6%)' 등 나름대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첫 사용 시기는 14~16세가 적당” 42.6%

그렇다면 MZ세대는 과연 몇 세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할까요? 42.6%가 '14~16세'를 적정 연령대로 꼽았어요. '17~19세'가 24.9%로 뒤를 이었고 '20세 이상'이라는 응답도 17.9%나 됐어요. '8~13세'는 14.1%에 그쳤고 '5~8세'는 0.5%로 극히 적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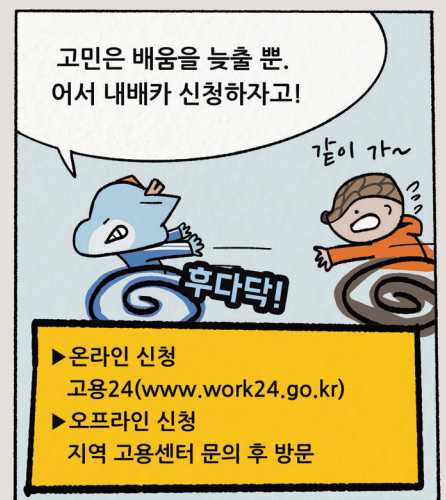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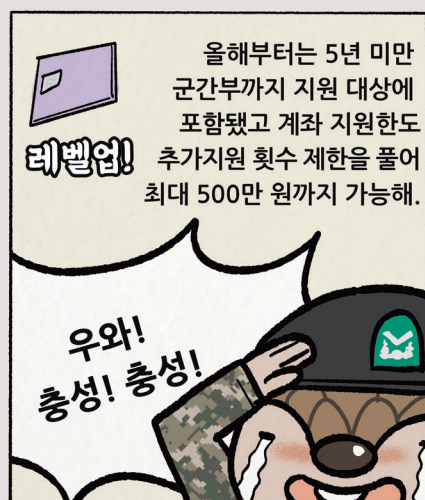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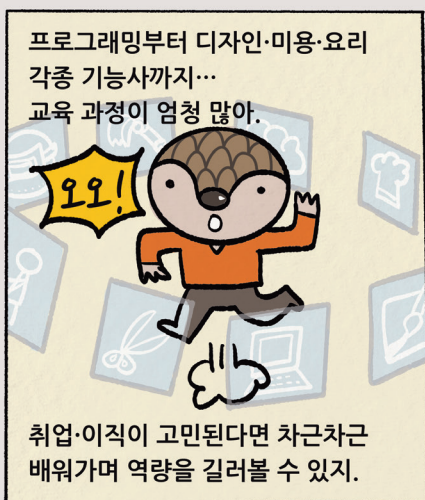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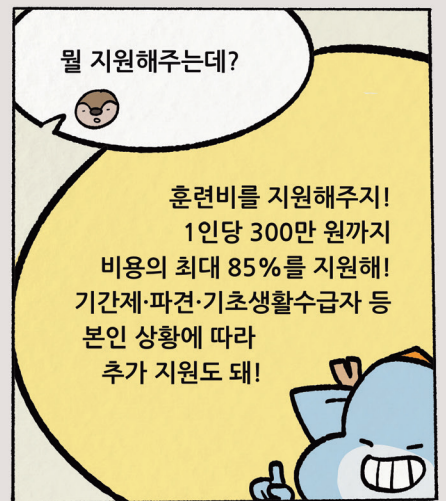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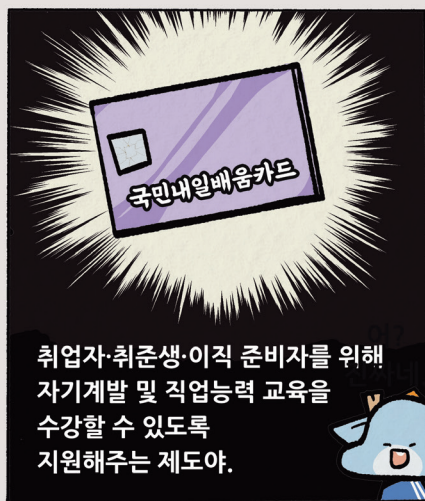
초등학생 시기에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된다고 답한 Z세대 어흥님과 M세대 똥이님은 “요즘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이 꼭 필요해 보여요. 모둠활동이나 과제할 때 정보를 찾아야 하는데 집에 컴퓨터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라며 “스마트폰이 없으면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연락 수단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어요.

반면 중고등학생 때가 적기라고 답한 Z세대 리즈님과 M세대 일게미님은 “아이들이 너무 일찍 스마트폰을 접하면 집중력이나 문해력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스마트폰은 정말 필요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때부터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며 “성인인 저도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데 어릴 때부터 사용하면 뇌 발달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해외처럼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봐요”라고 전했어요.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만큼 MZ세대가 스마트폰을 통해 무엇을 하고 어떤 가치를 얻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비판적 사고를 하고 올바르게 정보를 분별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균형 잡힌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노력한다면 분명 더 나은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K**

국민내일배움카드

내일의 일자리 위한 배움을 지원합니다



올바른 미디어 이용법 놀이로 배운다

2학기부터 초등학교 100개교 지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월 28일 경남 창원시 합성초 늘봄학교 문화예술 프로그램 현장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만 3세 이상 만 9세 이하)의 93.7%가 미디어를 이용 중이고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3시간 정도로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시간보다 세 배 이상 높다. 이렇게 어린이들의 미디어 이용률이 높은 만큼 올바른 미디어 접근과 분별력 있는 콘텐츠 이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늘봄학교 미디어교육’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1학년들이 함께 놀며 즐기는 동안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경험하고 이해하며 이용예절 또한 배울 수 있는 놀이 중심으로 운영된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두 시간씩 무료로 제공하는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으로 올 2학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재단과 함께 2024년 2학기 ‘늘봄

학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교구재 등 교육자료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들이 더욱 흥미롭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2025년부터 이를 전국 초등학교 1000개교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외에도 ‘미디어교육운영학교’를 통해 ‘뉴스 읽기로 문해력 신장’, ‘허위조작 정보 판별력 제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보급해 초·중·고교생들이 디지털 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비롯해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신청, 각종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관련 자료는 언론재단 미디어교육 누리집 ‘미카(www.me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

임연영 기자

KTV 정기개편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도전 골든벨 출연
김현지 앵커가 말한다**

한국정채방송원(KTV)이 9월 새로운 편성과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를 찾아간다. 이번 정기개편은 ‘정책이 궁금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채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KTV의 운영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는 김현지 기자가 앵커를 맡아 눈길을 끈다. 고교시절 KBS ‘도전 골든벨’ 출연을 계기로 방송에 대한 호기심을 키운 그는 미디어를 전공한 이후 기자로서 경력을 이어왔다. 김 앵커는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앵커가 되고 싶다”면서 포부를 전했다.

분야별 시사 뉴스와 정책 뉴스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KTV 대표 뉴스 프로그램 ‘생방송 대한민국 1부’는 평일 오전 10시에 방송된다.



김현지 앵커. 사진 KTV



에어컨 온도 1도 ↑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도)

월 2,138원



**고효율 조명 사용하고
안쓰는 조명 끄기**

월 4,693원



**안쓰는 제품
플러그 뽑기**

월 1,668원



샤워시간 1분 ↓

월 1,333원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 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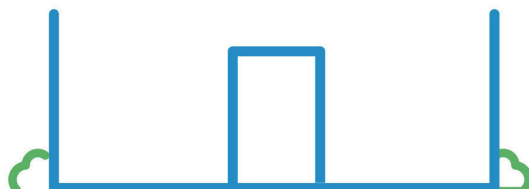
샤워 중 물 잠그기(비누칠 등)

월 4,000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월 5,631원



대중교통 이용

월 69,010원



1등급 전기차 타기

월 68,672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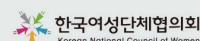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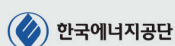
1등급 타이어 사용

월 14,018원



적정 공기압 유지

월 5,077원



인천 전기차 화재 피해차량에 ‘무료 세차’ 김재성·김영호 씨

“이틀간 150대 몰려와 세차용 걸레만 1000장 힘들지 않았냐고? 두 배 세 배 더 도울 것”

8월 1일 오전 6시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 전기차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현장에는 300명이 넘는 소방인력과 펌프차량 등 소방장비 80여 대가 동원됐고 불씨는 8시간이 지나서야 사라졌다. 아파트를 뒤덮은 검은 연기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수백여 명이 옥상으로 대피하거나 소방대원에게 구조됐다. 반나절 가까이 이어진 화재로 아파트에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기면서 800여 명의 주민은 삼시간에 이재민이 됐다.

또 다른 피해는 차량들이었다.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비롯해 70여 대가 완전히 불에 탔다. 또 다른 70여 대도 그을림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해당 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물론 인근 주택과 상가에 세워져 있던 차들까지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보험처리를 요청한 차량만 지금까지 800대 가까이 이른다.

화재로 인한 차량의 그을림은 빨리 씻어내는 것이 관건.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인근에서 고압식 기계 세차장을 운영하는 김재성·김영호 씨는 차량 피해가 남 일 같지 않았다.

“불에 그을린 차량을 세차하는 데 6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넘게 든다는 주민들의 말을 들어요. 정말 걱정이 크겠다. 우리가 좀 도와줘

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재성·김영호 씨가 ‘무료 세차’ 봉사에 나선 이유다. 화재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이틀간 피해 차량에 세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다. 아파트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알렸다. 특히 당장 출근을 해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차량 복구가 한시라도 급한 상황. 이틀간 150대의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지만 당황할 새도 없었다. 직원이라곤 둘뿐인 세차장에서 두 ‘사장님’은 하루에 70~80대를 직접 닦았다. 기계 세차를 해도 차량에 남아 있는 화재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길이 한 번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새까맣게 변한 걸레 1000장이 장렬히 ‘전사’했다. 일 평균 300만 원, 이틀간의 매출도 함께 증발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피부병을 얻어 병원까지 다녀야 했다”고 말했다. 그런 와중에 “가게 홍보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는 비난도 들렸다. 괜히 좋은 일 한다고 나섰다 후회한 적은 없을까? 주민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일이 다시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는 물음에 두 사람은 외려 “두 배, 세 배로 더 많이 도와주고 싶다”고 했다. 수백만 원의 매출보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뿌듯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영호(왼쪽)·김재성 씨는 최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차량을 대상으로 이틀간 무료 세차를 제공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불길이 8시간이나 지속됐다. 화재 발생 당시 지역 상황은 어땠나?

불이 난 아파트 맞은편에 살고 있는데 이곳까지 냄새가 날 만큼 연기가 심각했다. 창문을 열었더니 소방차, 경찰차만 100대 넘게 와 있더라. 그날 이후 동네가 무척 어수선했다.

무료 세차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뭐였나?

화재 다음날 한 중년 남성이 왔다. 화재 피해를 입었는데 경차임에도 손 세차를 맡기려면 60만~80만 원이 든다고 했다는 거다. 인근 손 세차장들은 피해 차량으로 일주일치 예약이 꽉 찬

상황이었다. 더욱이 차량 정비 업소에서는 그을림이 심한 차량 등 화재 피해 차량은 수리 요청을 꺼린다. 발암물질 등이 남아 있거나 다른 차량에 그을림을 옮길 수 있어서다. 그 손님은 빨리 세차를 해야 하는데 비용은 비싸고 셀프 세차는 할 줄 몰라 찾아왔다고 했다. 기계 세차를 하고 추가로 좀 더 닦았더니 차가 말끔해졌다. 그분이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감사 인사를 올렸는데 그 글을 보고 몇 명이 더 찾아왔다. 그때까지는 무료로 해준 것도 아니었는데 다들 무척 고마워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뭔가 도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화재로 새까맣게 그을린 차량이 세차 후 말끔해진 모습. 사진 김영호

“이틀 동안 무척 고됐는데도 끝나고
소주 한잔 하니 피로가 싹 풀리더라.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그땐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로
더 도와주고 싶다.”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틀 동안 차량 150대 세차는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 언론 보도에서는 피해 차량이 80여 대라고 했다. 평소 하루 100대, 주말엔 많으면 200대 차량을 받기 때문에 이틀이면 우리가 충분히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한 손님에게 부탁해 아파트 커뮤니티에 무료 세차 사실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갈수록 피해 차량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닌가. 워낙 연기가 멀리까지 번진 탓이었다. 처음엔 불이 난 아파트 주차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만 받다가 나중엔 모든 차량을 무료로 해줬다. 워낙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 아파트 차량 여부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었다. 첫날엔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다음 날엔 저녁 9시까지 쉴 틈 없이 차를 받았다.

차량 상태는 어땠나?

피해가 큰 차들의 경우 완전히 잿더미였다. 물티슈로 앞유리만 겨우 닦고 운전해서 오는 경우도 많았다. 차량 바깥에 묻은 유해물질이나 재 같은 게 내부로 들어올 위험성이 있어 운전자들은 에어컨도 켜지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다. 더 상태가 심각한 차는 견인차에 끌려오기도 했다.

차를 닦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기계 세차는 10분 내로 끝난다. 하지만 그을림

을 완전히 없애려면 한 번 더 닦아줘야 했다. 강한 약품을 묻혀 손으로 닦는 일을 우리가 다 했다. 이렇게 하면 겉으로 보이는 그을림은 대부분 제거됐다. 전후 사진을 보면 놀라울 정도다. 이틀간 뺀 걸레만 1000장 정도다.

불에 그을린 차량을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것 아닌가?
우선 세차 기계가 망가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장 우리가 돕지 않으면 수십 대 차가 더 큰 피해를 볼 것 같았다. 몇 대를 세차한 뒤 기계 안을 보니 연기 냄새가 심하게 났다. 무료 세차를 끝냈을 땐 기계 3m 높이까지도 그을음이 번져 있더라. 그래도 기계가 망가지진 않았다. 그것만으로 다행이다.

두 사람 모두 피부병까지 얻었다고.

기계 세차장은 직접 카드결제를 한 뒤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무료이다보니 기계 조작을 우리가 대신해야 했다. 이틀 내내 하루 종일 야외에서 있으니 온몸이 새까맣게 탔다. 연기 냄새 때문에 처음엔 마스크를 쓰고 일했는데 나중엔 땀이 너무 나서 벗어버렸다. 기침이 많이 났다. 피부병은 그을림과 독한 약품에 오래 노출된 탓이다. 며칠간은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지금은 괜찮아졌다.

이틀간 포기한 매출이 6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들었다. 남

들 도우려다 본인들이 피해를 봤다.

8월은 세차장 성수기다. 7월 장마가 끝나고 휴가를 떠나는 차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8월이 되자마자 사고가 났다.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처음엔 고민도 했다. 한 대당 세차비가 1만~1만 5000원 정도이니 성수기 기준으로 이틀 매출이 600만 원이 좀 안 된다. 그래도 지역에 이런 큰 피해가 났는데 이틀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싶었다. 길게 보면 큰 손해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주민들이 무척 고마워했겠다.

특히 어르신들이 정말 고마워했다. 젊은 사람들은 셀프 세차장에라도 가지만 어르신들은 그러기도 힘들고 비싼 돈 주고 세차를 맡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우리 손을 잡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며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데 몸 둘 바를 모르겠더라. 걸레를 같이 빨아준 손님도 있었다. 커피, 케이크는 너무 많이들 사줘서 나중에 다시 손님들에게 나눠줬다.

인근 세차장 사장님들은 싫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싼 값을 받고 손 세차를 해주는 곳들 중엔 안 좋게 바라보는 곳도 있었다. 그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를 찾아오는 분들은 그을림만이라도 빨리 없애거나 세밀한 내부 세차까지는 필

요 없는 경우가 많았다. 수요층이 다르기 때문에 큰 피해를 준 건 아니었다고 본다.

‘홍보 목적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도 있지 않았나?

‘이 사람들 장사 잘하네’라며 비꼬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비난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좋게 봐줬다. 홍보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올해 3월 세차장을 오픈할 때 5일간 무료 세차 이벤트를 한 적이 있다. 인근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줄이 늘어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다. 둘이서 ‘다신 안 하겠다’고 했을 만큼 힘들었다(웃음).

밀려오는 차들과 씨름하며 ‘괜한 일을 했냐’ 후회되진 않았나?

이틀 동안 무척 고됐는데도 끝나고 소주 한잔 하니 피로가 싹 풀리더라. “진짜 피곤한데 뿌듯하지 않냐?”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그때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로 더 도와주고 싶다.

주민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온라인 카페에서는 이번 화재 이후 도움을 준 지역 업체 100곳 리스트가 공유되고 있다. 헬스장, 반려동물 카페, 식당 등 업종도 다양하다. ‘선한 영향력’이란 게 이런 게 아닐까. 우리 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그 시작을 이끌 수 있었다는 게 무척 뿌듯하다. **[K]**

조윤 기자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작사 자발 공개 권고

21개 전기차 브랜드 ‘배터리 정보’ 공개…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도

정부가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또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긴급점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8월 13일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근 확산하는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다.

정부의 권고 이후 지금까지 현대, 기아, 벤츠, BMW, 테슬라 등 총 21개의 국내 보급 전기차 브랜드가 모두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은 현대·기아·벤츠·볼보가 먼저 시행에 들어갔다. 폭스바겐(아우디 포함)은 연중 상시 무상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테슬라, BMW, 르노, KG모빌리티는 8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GM, 포르쉐 등 5개사는 구체적인 일정을 추후 안내할 계획이다.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과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등을 고려해 개선과제를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동해 도깨비골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

도깨비의 장난? 푸른 바다 위를 자전거로 달리다



손에 닿을 듯한 하늘, 시리도록 푸른 바다. 동해의 그림 같은 풍경 모두를 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 있다. 강원 동해시 '도깨비골스카이밸리'다. 2021년 6월 개장한 도깨비골스카이밸리는 묵호 등대와 월소택지지구 사이에 있는 도깨비골에서 동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도록 조성한 체험형 관광지다. 도깨비는 도깨비의 방언으로 마을 이름에 맞춰 도깨비를 테마로 한 조형물과 전망대가 조성돼 있다. 이곳의 백미는 약 59m 높이에서 푸른 바다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주는 '스카이워크'다. 케이블 와이어를 따라 하늘 위를 달리는 자전거와 바다를 배경으로 30m 높이에서 내려오는 원통형의 자이언트 슬라이드 등 '스릴 만점' 체험시설도 갖추고 있다. 직접 바다 위

를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된 해랑전망대까지 동해를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이곳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

59m 높이 투명유리 아래 바다가

도깨비골은 예전부터 어두운 밤에 비가 내리면 푸른 빛이 어른거려 도깨비가 출몰하는 골짜기라고 불렸다. 사실 이곳은 6·25전쟁 이후 가난한 이들이 몰려 살던 달동네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제비집처럼 작은 집들이 위태로운 경사로에 다닥다닥 생겨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걸 보며 '또 제비'라고 불렀는데 자연스럽게 발음이 비슷한 도깨비가 골짜기 이름이 됐다고도 전한다.



(왼쪽) 케이블 와이어를 따라 하늘 위를 달리는 자전거. (오른쪽) 강원 동해 묵호등대와 월소택지지구 사이 도깨비굴에 조성된 도깨비굴스카이벨리에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해랑전망대가 설치돼 있다. 사진 한국관광공사

이름처럼 입구에서부터 도깨비방망이와 도깨비를 테마로 한 조형물을 만날 수 있다. 가파른 언덕을 따라 올라가야 하지만 무섭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 도깨비 조형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주변을 둘러보다 보면 어느새 매표소 입구에 닿는다. 매표소에서 입장권과 체험시설 이용료를 결제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카이벨리로 올라갈 수 있다.

바다를 향해 서 있는 스카이워크로 먼저 가보자. 아래에서 볼 때도 아찔하던 59m 높이의 스카이워크는 실제로 걸어보면 더욱 짜릿하다. 바닥 일부가 투명 유리와 메시(Mesh) 철망으로 돼 있어 아래를 볼 때마다 허공을 걷는 듯 간담이 서늘해진다. 길이가 160m로 다리가 후들거

러 끝까지 가는 데 한참 걸린다.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는 관광객도 자주 볼 수 있다. 아찔함을 감수한 만큼 스카이워크 끝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일품이다. 끝없이 펼쳐진 동해를 눈앞에 두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즐길 수 있다. 푸른 바다와 맞닿은 하늘은 마치 손에 잡힐 듯하다. 관광객들은 이 풍경을 놓치지 않고 기념사진을 남기느라 바쁘다. 멀리 보이는 묵호항과 도깨비굴 일대의 풍경도 한 폭의 그림 같다.

스릴을 더 즐기고 싶다면 스카이 사이클이나 자이언트 슬라이드를 타는 것도 방법이다. 스카이 사이클은 59m 높이에 설치된 와이어를 따라 상공을 달리는 자전거다.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다보면 비명이 절로 나온다. 자이언트 슬라이



1 묵호항이 내려다보이는 논골담길, 벽화와 함께 골목 감성을 느낄 수 있다. 2 도깨비골스카이밸리에서 바라본 동해시 묵호동 논골담길. 3 논골담길 입구에 있는 벽화. 사진 강정미 기자

드는 원통 미끄럼틀을 타고 27m 아래로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 안전모를 착용하고 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스릴 대신 주변 관광지과 풍경을 즐겨도 좋다. 스카이밸리 주변에는 해랑전망대와 묵호항, 논골담길, 묵호등대 등 동해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풍부하다. 해랑전망대는 도깨비골스카이밸리와 연계해 조성한 길이 85m의 해상 보도 교량으로 도깨비방망이를 형상화했다. 스카이워크에서 내려다보면 도깨비방망이 모양의 해랑전망대를 제대로 볼 수 있다. 해랑전망대는 직접 바다 위를 걸으며 동해를 더욱 가까이 즐길 수 있어 스카이밸리와는 또 다른 매력이다. 야간에는 경관 조명이 불을 밝혀 낮과 다른 운치를 느낄 수 있다. 매주 금~일요일에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해랑전망대와 묵호항수변공원 사이에 '도깨비 야시장'이 열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까지 즐길 수 있다.

동해시 묵호동 논골담길은 묵호항의 역사와 시간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묵호항은 한때 동해를 대표하던 항구다. 1941년 개항 이후 무연탄과 시멘트 운송으로 호황을 이뤘고 오징어와 명태잡이로 이름났던 곳이다. 묵호항으로 사람

동해의 또다른 한국관광 100선

무릉계곡에서 피서와 절경을 한 번에 즐기세요



사진 장민재 기자

강원 동해시에는 도깨비골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와 함께 한국관광 100선에 오른 '무릉계곡'이 있다.

두타산과 청옥산 사이를 흐르는 무릉계곡은 신선이 노닐었다는 일명 무릉도원이라 불리는 곳으로 수많은 기암괴석과 절경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오래전부터 전설과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명승지로 1977년 국민관광지 제1호로 지정됐다.

무릉계곡에는 5000m²에 달하는 너럭바위가 있다. 족히 수백 명이 앉아 쉴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무릉반석이다. 너럭바위에 앉아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 더위가 금세 날아간다. 옛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며 남겼던 석각도 바위 곳곳에 남아 있어 눈길을 끈다.

무릉반석을 지나면 두타산과 청옥산을 병풍 삼아 아늑하게 들어앉은 삼화사를 만난다. 신라 시대에 지어진 오래된 사찰에는 철조노사나불좌상, 삼층석탑 등 문화유산이 남아 있다. 천혜의 풍경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 템플스테이로도 인기가 많다.

삼화사 경내를 둘러보고 울창한 숲길을 10분쯤 걸으면 깎아지른 바위를 타고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를 볼 수 있는 학소대가 나온다. 물빛이 옥처럼 맑은 옥류동,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했다는 선녀탕과 쌍폭, 용추폭포까지 감탄사를 멈출 수 없다. 용추폭포 아래에는 깊은 소가 있다. 누구나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더위를 날리고 쉬어가기 좋다.

들이 몰려들면서 항구 주변 언덕에는 판잣집이 늘어갔다. 오징어·명태잡이를 생업으로 했던 마을 사람들은 언덕 꼭대기 생선을 말리는 덕장으로 오징어, 명태를 지게나 대야로 날랐다. 오징어 더미에서 떨어지는 바닷물로 늘 질었던 골목엔 ‘남편과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남았다. 불꽃처럼 호황을 누렸던 묵호항은 1980년대 동해항이 개항하면서 쇠퇴했다. 젊은이들은 새 일자리를 찾아 묵호를 떠났다. 묵호 인구가 절반 이상 줄었고 빈집도 늘었다. 현재 거주자들은 대부분 노인이다.

논골담길, 묵호등대에서 만나는 추억과 낭만

쇠락한 동네에 2010년 반전이 일어났다. 동해문화원이 이곳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풍경을 벽화로 그리기 시작하면서 ‘감성마을’로 변신했다. 고된 뱃일을 마친 일꾼들이 매일 들러 막걸리와 노가리 안주로 하루의 피로를 풀었던 대포집, 오징어와 명태, 문어를 말리던 사람들, 아이들이 뛰놀던 풍경이 벽화로 다시 살아났다. 논골1길, 논골2길, 논골3길, 등대오름길 등 총 네 개 길에 116개 벽화가 있다. 그림이 낡으면 새 벽화를 그려 마을을 단장한다.

가파른 언덕길 한두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 사이사이에서 벽화를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판잣집들과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항구와 어선들, 그 뒤로 펼쳐진 동해가 색다른 풍경으로 다가온다. 2013년 인기 드라마 ‘상속자들’의 촬영지나 골목 곳곳 숨어 있는 카페와 쉼터, 펜션 등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다. 논골담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바람의 언덕’에는 포토존도 많아서 사진을 찍기에 좋다.

논골담길은 묵호등대로 이어진다. 해발 고도 67m에 자리한 묵호등대는 1963년부터 묵호항을 지나는 어선들의 길을 밝혀주던 곳이다. 지금은 묵호등대해양문화공간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등대 1층에 있는 디지털 방명록 앞에서 사진을 찍고 내부 계단을 통해 등대에 오를 수 있다. 나선형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전망대가 나온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동해와 일대 풍경도 시원하다. 논골담길의 아기자기한 풍경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도깨비골스카이벨리의 짜릿한 풍경을 한 발 떨어져 느긋하게 감상해보는 것도 좋다. 스틸은 없어도 낭만이 넘친다. **K**

강정미 기자



사진 한민권기자

도깨비골스카이벨리

주소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2-109

이용시간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오후 9시

입장료 성인 3000원, 어린이·청소년 2000원

문의 (070)7799-6955



사진 한민권기자

해랑전망대

주소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13-48

이용시간 연중 무휴, 오전 10시~오후 9시

문의 (033)534-6955



사진 강정미 기자

묵호등대해양문화공간

주소 강원 동해시 해맞이길 289

이용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입장료 무료

문의 (033)531-3258

“가난, 따돌림, 데이트 폭력... 한 번도 봄이 온 적 없는 내 인생 어떻게 추슬러야 할까요?”

Q

저는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생활력이 없고 알코올의존증이 있던 아버지는 제가 열 살 되던 해에 행방불명됐고 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 새벽같이 집을 나가 늦은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단칸방에서 대충 밥을 찾아 먹고 TV를 보다가 혼자 잠든 기억이 대부분입니다. 어머니의 돈벌이가 불안정하니 1년이 멀다 하고 이사를 했고 전학 간 낯선 학교에서는 자주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성인이 된 뒤로도 제 인생은 암흑기였습니다. 대학에 입학해 사귀던 남자 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심하게 당해 지금도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인지 회사에 취직해도 적응하지 못하고 금방 그만두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요. 자신감이 없으니 무언가를 배우는 것도 쉽지 않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수면장애가 심해져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제 삶을 돌아켜보면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온다고 하지만 제게는 한 번도 봄이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왜 이럴까요?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추슬러 수 있을까요?

(이하나·가명, 34)

독자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giyulty@gmail.com으로
보내면 됩니다.
채택된 사연은
'신기울의 마음 상담소'
지면을 통해
상담해드립니다.

A

한나 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개해주고 싶은 지인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도 한나 님처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한 분이지만 아버지는 세 분이였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아버지가 모두 달랐습니다. 집안이 어려워 대학에 가지 못하고 곧바로 취업했는데 입사 하루 전날, 건널목에서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사고 때문에 하루도 회사에 출근해보지 못했고 치료를 받을 수도 쉬 수도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이지요. 몸을 회복하고 다시 회사에 취업해 5년 정도 힘들게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남자 친구가 돈을 모두 가져가버렸습니다. 도박에 빠져 있던 남자 친구와는 그 뒤로 연락이 끊겼고요. 영화처럼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을 거두는 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면 좋았겠지만 그녀는 지금

“하루아침에 힘든 현실이
마법처럼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수용하고
해석하는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의 궤적도 바뀌게 됩니다.”

도 잔잔한 사건·사고를 겪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으로 그녀의 삶을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그런 주위의 시선에는 아랑곳없이 누구보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명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한 어머니를 대할 때는 분노가 아닌 연민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어머니가 선택한 인생에 대해 이해하려고 합니다. 주 말이면 자신보다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봉사활동을 다니고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을 돕는 기부도 잊지 않습니다. 언제 문 닫을 줄 모르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자신의 미래가 불안할 수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찾아낸 용서의 마음과 이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실천하는 부지런함이 그녀의 삶을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하지 않는 지혜가 된 것이지요.

굵은 나무의 그림자가 더 사랑스럽다

저는 그녀를 볼 때마다 굵은 나무가 떠오릅니다. 정호승 시인의 ‘나무에 대하여’라는 시에는 ‘굵은 나무의 그림자보다 굵은 나무의 그림자가 더 사랑스럽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굵은 나무는 자기의 그림자가 구부러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고통의 무게를 견딜 줄 아는 굵은 나무는 자기의 그림자가 구부러지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온갖 풍파를 견디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이리저리 굵은 모습으로 자란 나무는 그렇게 굵어져서 더 큰 그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굵은 나뭇가지 위로는 더 많은 새가 앉을 수 있으며 큰 그늘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이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놓은 시원한 그늘이 그녀를 아는 많은 사람에게 조용한 위로를 나눠주고 있으니까요.

한나 님에게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한나 님의 삶도 굵은 나무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굵은 나무가 아름다울 수 있듯이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한나 님의 삶도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힘든 현실이 마법처럼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수용하고 해석하는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의 궤적도 바뀌게 됩니다. 한나 님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겨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난히 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겨울 속에서 자신만의 봄을 만들면 되니까요. 그 봄은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그 마음을 실천해갈 수 있는 인내와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한나 님, 현실은 과거와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지난 시절 나를 힘들게 했던 과거도 막연한 미래의 불안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다 보면 차갑고 시린 겨울 속에서 한나 님만의 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K**



신기율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인드풀링(Mindfulness) 대표이자
‘신기율의 마음찾집’ 유튜브를
운영하며 한부모가정 모임인 ‘그루맘’
교육센터장이다.

9월, 전국 329개 미술관·화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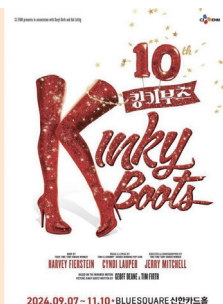
대한민국 미술축제 9월 한 달간

9월, 대한민국이 미술로 물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대한민국 미술축제(Korea Art Festival)’를 처음 연다.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광주와 부산,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미술 행사를 유기적으로 잇는 행사다. 광주비엔날레와 부산비엔날레를 비롯해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프, 서울 아트위크,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까지 대규모 미술 행사를 연계했다.

축제가 열리는 9월 한 달 동안 전국의 미술관, 화랑, 아트페어 및 비엔날레 등 전시공간 329곳에서 무료 입장 또는 입장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부산비엔날레 입장권을 30% 할인하는 통합입장권을 인터파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철도승차권과 각 비엔날레 할인권을 결합한 특별 철도 관광 상품도 구입 가능하다. 9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미술여행주간’을 운영한다. 전시해설사와 함께 미술관·화랑·아트페어 등을 둘러보고 미술에 대한 유익한 정보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접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7개 권역 16개 코스가 준비돼 있으며 총 64회 운영한다. 미술여행의 참가비는 5000원이다. 상세한 정보는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 공식 누리집(k-artfestiva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예술경영지원센터



뮤지컬 킹키부츠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로 올해 한국 라이선스 공연 10주년을 맞았다. 영국의 수제화 공장들이 경영악화로 폐업하던 시기, 특별한 부츠를 제작해 유일하게 살아남은 구두공장의 성공 스토리를 담았다. 포용과 긍정의 메시지를 담은 스토리, 흥겹고 세련된 음악으로 총 관객수 12만 명을 동원하며 스테디셀러에 올랐다. 김호영, 이석훈, 최재림, 강홍석 등이 출연한다.

기간 9월 7일~11월 10일

장소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



전시 여세동보(與世同寶), 세상 함께 보배 삼아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을 기념한 국보·보물 특별전이 열린다. 전시에는 ‘훈민정음 해례본’, 신윤복의 ‘미인도’와 ‘월하정인’, ‘청자상감운학문매병’ 등 국보·보물급 지정문화유산 40건·97점, 간송 유품 26건·60점 등 총 66건·157점을 6개 전시실에 나눠 전시한다. 또한 전시와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전문가 초청 강좌 등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기간 9월 3일~12월 1일

장소 대구간송미술관



창작가무극 금란방

서울예술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조선 시대에 있었을 법한 밀주방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관객 참여형 작품이다. 관객을 밀주방에 찾아온 ‘손님’으로 설정해 관객들이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공연에 참여하도록 기획했다. 여기에 원형 돔 형태의 하늘극장을 활용해 무대에 판타지 요소를 더했다. 클럽 디제잉, 밴드 공연, 댄스 퍼포먼스 등 흥겨운 무대가 관객을 사로잡는다.

기간 8월 29일~9월 28일

장소 국립극장 하늘극장

피플 | 18년 만에 새 앨범 낸 카운터테너 이동규

“클래식 장르 다시 일으켜 보고 싶다” 18년 만의 인사



사진: 크리스티아

소프라노 음역을 구사하는 남성 성악가인 카운터테너. 세계 정상급 카운터테너 이동규가 새 음반 ‘드림 쉼터: 꿈을 누비는 자’를 발매했다. 18년 만의 신보다. ‘꿈을 누비는 자’라는 뜻의 이번 앨범에는 비제의 ‘하바네라’, 슈베르트의 ‘마왕’, ‘섬 집 아기’ 등 12곡이 실렸다. 바로크음악부터 인상주의, 한국 가곡까지 섬세한 감성과 역동적인 창법이 잘 드러나는 곡들을 골랐다. 이동규는 음반 발매를 하루 앞둔 8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튜브에 떠도는 내 연주곡들을 정제된 곡으로 ‘박제’하고 싶었다”며 “내가 원하는 곡과 대중이 원하는 곡을 모두 넣었다”고 소개했다.

이번 앨범은 세계적인 메이저 음반사 워너클래식 산하 에라토 레이블을 통해 발매됐다. 최정상급 성악가들이 이 레이블을 통해 음반을 발매했고 한국인으로는 조수미가 유일하게 이곳에서 10여 장의 앨범을 냈다. 이동규는 “어릴 때 에라토 레이블의 앨범을 수집하며 조수미 선생님의 음악도 접하게 됐다”며 “언젠가 여기서 음반을 발매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는데 마침내 이뤘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학 중이던 18세 때 독학으로 고음 발성을 익힌 이동규는 캐나다 밴쿠버 음악 아카데미에서 본격적으로 성악 공부를 시작했다.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 최연소 입상, 스페인 비냐스 콩쿠르에서 우승했고 이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이탈리아 밀라노 라 스칼라 오페라 등 세계 유수 극장을 누비며 실력을 인정받아왔다. 한국에서는 2023년 JTBC의 ‘팬텀싱어4’에서 ‘포르테나’ 멤버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동규는 “‘팬텀싱어’를 통해 팬덤을 얻었고 더 많은 이들이 클래식 음악에 관심 갖는 계기가 됐다”며 “클래식 장르를 한국에서 다시 일으켜보고 싶다는 묵직한 과제를 얻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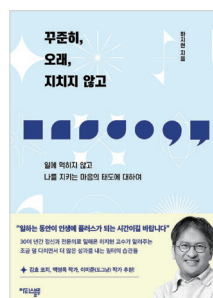
음반 발매를 기념해 8월 28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리사이틀을 연다. 이동규는 “이번 공연에서 제 꿈을 다양하게 펼쳐 보일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서경리 기자



저자 이정모(다산북스)

도서 찬란한 멸종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서 ‘인류 대멸종’을 주제로 강의해 화제를 모았던 과학 스토리텔러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이 쓴 신작이다. 책은 인류가 멸망한 2150년 인공 지능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지구가 탄생한 46억 년 전으로 거슬러가며 지구 역사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저자 하지현(마티스블루)

도서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

깨어 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일하면서 보내는데 일이 힘들고 괴롭기만 하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일까? 저자는 정신과 의사로 30년 넘게 환자들의 고민을 듣고 그 무게를 함께 나눠왔다. 책은 상처 입은 사람을 위해 스스로를 지키며 일하는 마음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한다. 서경리 기자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

설악산 3대 폭포이자 국내에서 가장 긴 폭포로 알려진 토왕성폭포를 보기 위해 더위를 무릅쓰고 설악산 등반을 했습니다. 기대감에 계단 900개를 힘겹게 올라갔는데 정말 멋졌습니다. 경치를 감상하며 잠시 쉬는 동안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어려움에 고통받는 이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운 여름이 더 더운 물이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야겠어요.

최선진 경기 성남시

공감
칭찬합니다!

768호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부터 대학 입시, 취업 등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도 힘든데 아픈 가족을 혼자 돌보는 청년도 많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기댈 곳도 없는 청년들이 좌절했을 때 보듬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전담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열었다니 반갑네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모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김재현 서울 강남구



767호 독립영웅에게 새 옷을 입힌 김혜순 한복 명장의 기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로 한복을 입힌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보며 기술의 위대함을 느끼는 한편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흑백 사진 속 어두운 모습으로만 기억되던 분들을 고운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접하니 반갑고 고마웠어요. 조국의 광복을 기다렸을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 아프게만 기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류화정 인천 계양구

디지털 <K-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K-공감 gonggam.korea.kr

youtube.com/weeklygonggam

blog blog.naver.com/mcst-pr

facebook.com/wegonggam

k v.daum.net/channel/3094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K-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와 '공감 칭찬합니다!'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9월 4일까지 이메일(gonggam@chosun.com)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2024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바이오 대전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다!

Grand Transitions in Bio: Designing the Next Decade

GLOBAL
BIO
CONFERENCE
GBC 2024

2024년 9월 4일(수)
- 9월 6일(금)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gbckorea.kr



홈페이지
k-shoppingfesta.org

살맛나는 행복쇼핑

동행축제 2024

K-SHOPPING FESTA

2024.8.28-9.28

